

차 례

공주문화 2009년 3-4호



동학사 벚꽃길
사진제공 | 신용희 기자

등록번호_충남 라01136(1998.6.1)
발 행 인_정재욱
편집위원_이극래, 나태주, 구중희,
신용희, 김춘원
발 행 처_공주문화원
공주시 반죽동 184-2
041 · 852 · 9005, 852 · 7600
E-mail_8529005@hanmail.net
홈페이지_http://www.culturegi.or.kr
인 쇄 처_공주신문사
041 · 853 · 8111

- 02 공주의 어제와 오늘
 금성동 미나리밭
- 03 웅진칼럼
 금강에 살어리랏다 / 변재열
- 06 아름다운 공주 가꾸기
 아름다운 간판⑥
- 08 공주를 사랑한 옛사람 옛노래⑩
 공주 동원에서 읊다 / 백원철
- 12 [연재]
 공주의 땅이름 이야기⑩ / 장길수
- 16 따뜻한 공주사람 이야기⑨
 공주를 효의 고장이라 말한다면 / 나태주
- 20 [연재]
 公州, 사진으로 만나는 옛 시간 풍경① / 김혜식
- 22 공주의 봉사단체를 찾아⑩
 대한적십자사 공주지구 협의회
- 24 공주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의당면 송학리(3)
- 32 공주의 인물
 효자 송정 정이재 선생
- 34 시정소식
- 38 내고장 소식
- 44 미담
- 46 예술의 향기
- 50 문화원 소식
- 59 새책소개
- 60 청소년백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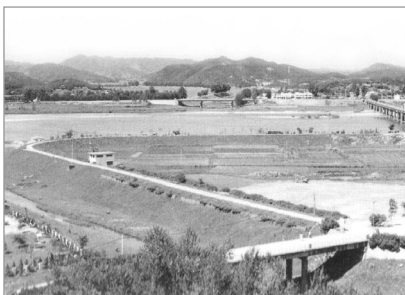
금성동(미나리밭)

공주시의 서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주위에 산성동, 교동, 웅진동과 접하고 북쪽 금강너머로 쌍신동, 신관동과 인접한다. 이 지역에서는 과거 미나리가 재배되었던 논으로 공주시의 홍수통제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전부 매립되어 건물이 들어서 있다.



◀ 근향정[정자] | 미나리밭을 없애면서 그 흔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하였다. 근(芹)은 미나리를 뜻한다. 즉, 미나리의 향기로 금성 지구의 오랜 발전을 기원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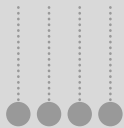
▼ 1970년대의 미나리밭



지금은 전부 매립되어 식당, 여관, 예식장 등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금강공원[놀이터] | 금강철교 건너기 전의 강가에 있는 공원으로, 금강과 수목의 어울림이 아름다운 경치를 이뤄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이다.





변재열 —

- 호 海峰/巢鶴
- 충남 공주 출생(1946)
- (전)충남중등국어교육연구회장,
백제시문학회 회장
금호중학교장
- (현)대전시인협회장
공주대학교 국제교육원 강사
대전지방검찰청형사조정위원

금강에 살어리랏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야 있겠지만 박수갈채를 보낸다. 강은 역사를 잉태하였고 문화를 탄생하여 인류복지의 근간을 이루어 놓았다. 물이 있어 강이 되고 강이 있어 인류사회의 터전이 형성되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에 생명 역시 그 물을 소중히 생각하고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면서 행복의 바탕이 되었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 청결함을 주었고 생명보호와 음식문화를 발전시켰으며, 결합을 통한 집단적 에너지의 강인성과 분리를 통한 개인적 에너지의 부드러움을 우리에게 선사하였다. 이와 같이 물은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다.

조선왕조실록 지리지 금강(공주문화원 문화총서 15참조) 편을 보면 - 대천은 웅진이다. 그 근원이 전라도에서 나와 양산 서쪽으로 지나 영동현에 들어가고, 이산현에 이르러 적등진이 되고, 옥천에 이르러 화인진이 되며, 회덕에 이르러 이원진이 되고, 연기에 이르러 또 큰 내가 있어, 청주의 서쪽지경으로부터 남쪽으로 흘러들어와서, 그 아래가 웅진이 되고, 공주에서 금강이 되며, 부여에서 고성진이 되고, 임천에서도 고다진이 되며, 진포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 라고 적혀 있다. 비단같이 아름다운 금강이 되기 위해 물은 시간적 공간적 고난과 역경을 딛고 우리의 심경을 아우르는 공주 땅 금강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유년기의 달콤한 정서가 남아 있겠지만, 나에게 유년기의 금강은 마음의 향수요, 생활의 동반자였다. 반찬거리가 마땅치 않으면 채 한 개로



건져 올릴 수 있는 쏘가리와 보리새우, 모래무지와 뱀장어 그리고 노란 제첩과 참게를 잡아다가 즐거운 식탁을 꾸민 적도 허다했다. 또한 빨래가시는 어머니를 따라 제민천 대통다리 아래에서 물장구 치며 추억을 담았던 그 청정한 물줄기 그 속에서 나의 유년은 넉넉하고 풍요로운 청정수처럼 성장했다.

「논어」 제11편 선진1장을 보면 " 옛날 선배들의 예약은 소박하고 야인 격이었으나, 지금 후배들의 예약은 화려하고 군자 격이다. 만약 내가 둘 중의 하나를 택한다면 옛날 선배들의 것을 따르겠다. "(先進於禮樂 野人也, 後進於禮樂 君子也. 如用之 則吾從先進) 라고 했다. 요즈음 4대강 살리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엄청난 재원확보 문제, 국토의 효율적 관리문제,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 등이 그것이다. 난개발의 무책임성 발상이라면 몰라도 언젠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사업이다. 강과 강 사이 물길을 트는 것은 홍수와 가뭄의 예방과 이동수단을 통한 교통대란 해소 그리고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요구되는 사업임을 부정할 순 없다. 물은 트는 대로 흐르기 마련이다. 다만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싶은 우리네 심정처럼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성과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자칫 잘못하여 물장수 삼년에 궁둥이 짓만 남겨서는 안 되며, 애써 수고한 보람이 역사 앞에 찬사를 받아야 한다.

태초의 강에 오염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흐르지 않는 것을 텐데 부도덕한 사람들에 의해 오염 되었으니 우리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

유년기 추억과 향수를 달래려고 강가에 가면 우리가 저지른 과오의 흔적 속에 한숨이 앞선다. 이제부터라도 자자손손 그대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는 우리가 되자.

다뉴브나 씨느강을 부러워하거나 자멸하는 것은 백제인의 정신이 아니다. 우리의 타고난 끈질긴 집념과 금강 사랑정신에 올바르게 초점이 모아질 때 우리의 꿈과 낭만은 이루어지리라 의심치 않는다.



목소리만 높이면 다 되는 세상, 가슴 아픈 일이다. 강물은 작은 돌을 만났을 때의 소리와 큰 돌에 마주할 때 나는 소리가 확연히 다르다. 작은 물결에서 나는 소리는 둔탁하고 여린 가랑비소리를 내지만, 큰 돌에서 나는 소리는 예리하고 보다 강력한 천둥소리를 낸다. 사람들도 이와 같아서 작은 일에는 둔탁하고 여리게 생각하나 큰 일이 부닥치면 신경을 곤두세우며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대청댐이 생긴 이후 금강의 유속이나 물결의 파고는 달라졌다. 과거의 유속이나 파고는 낮아져 잔잔한 호수의 물결처럼 흐르고 있다. 우리의 가슴에 유순하고 안정적인 감성을 심어주면서 잔잔히 흐르기에 충격의 에너지가 약해졌나보다. 느슨하고 안일하다보니 강에 대한 필요성과 감사함이 왜곡되지 는 않았는지 걱정이 된다. 금강 하구 독을 가지고 지자체간 이율배반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 강바닥은 썩어가고 있다. 제2시화호가 될까 염려스럽다는 민중의 목소리가 높다. 문지방도 들락날락해야 윤기가 돌듯, 어머니의 땃줄처럼 경이롭고 청정한 금강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물살의 드나들음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인간의 자욕보다 자연의 본질에 따라감이 순리일 것이다.

아무쪼록 금강이 있기에 공주가 있고 공주시민이 있기에 금강물이 유유히 흐른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게 될 때만이 선인들이 즐기고 사랑했던 그런 금강의 맛과 멋을 우리들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금강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 바로 보고 바로 갈 줄 아는 행복한 너와 나의 길을 물으며 가르쳐주고 있다.

좀 늦긴 했지만, 정부의 4대강 살리기의 일환책으로 금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발표된 것을 환영하며, 금강이 살아야 공주시민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작은 간판으로 공주를 아름답게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우리의 생활환경은 점점 윤택해 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 속에서 접하는 '시각환경'은 '요란하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의 출발은 바람직하지 못한 '불법간판'에서 비롯된다. 간판의 난립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물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원은 금강뉴스와 공동으로 '아름다운 공주 가꾸기' 캠페인을 개최, 연속적으로 연재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간판'을 기획·연재하면서 연내 '아름다운 간판상' 시상도 할 예정이다. - 편집자

해동아구 - '간판'보다 '맛'으로 승부한다



공주시 신관동은 근년간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신관동 사거리에서 조치원 가는 방향의 넓은 도로는 시원하게 뚫려있고 거기에 발맞춰 고층빌딩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그 가운데 신관초등학교와 주공 5차단지 입구 한쪽에 보이는 식당이 눈에 띈다. 갈색 나무의 재질로 지어진 이 집은 그동안 어디에 숨었다가 이제 얼굴을 보이는 것일까? 알고 보니 주공 5차단지 조성으로 도로계획에 의해 5년 전 도로

확·포장공사로 앞 건물이 헐리면서 뒤에 숨어있던 이집 즉 '해동아구'가 얼굴을 내밀게 된 것이다.

이 집의 간판은 건물 오른쪽에 '해동아구'라고 붙인 네 글자 부착식 간판이 전부다. 다른 곳처럼 입간판이나 돌출간판은 보이지 않는다.

올해 식당 개업 13년째를 맞는 '해동아구' 신대현 대표는 "간판이 크다고 장사가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식당은 어디까지나 '맛'으로 승부를 해야죠"라며 아구 등 해산물 전문식당으로서의 자신감을 나타낸다.

'동해'가 아니고 왜 '해동'이냐고 묻자 '동해(東海)'는 '동쪽바다' 즉 한정된 바다를 말하지만 '해동(海東)'은 더 넓은 바다의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집의 주 메뉴인 아구찜 외에 코다리(명태를 덜 말린 것)찜과 아구오소리감투(아구의 위장 부분)찜이 인기다. 아구오소리감투는 소화력이

종고 쫄깃한 맛이 일품으로 이 맛에 한번 들인 사람은 중독성에 걸려 또 찾지 않고는 못 배긴다고.

13년간 단골들의 입소문으로 날이 갈수록 아구 매니아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은 “해산물인 아구는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탁월한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웃는 그는 공주BBS지회 수석부회장직을 맡는 등 청소년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조용한 공주맨이다.

— 신용희 명예기자



〈간판상식〉

간판이 좋으면 장사도 잘된다?

‘좋은 간판은 유능한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가장 믿음직한 영업사원으로서의 간판은 지속적인 홍보수단이며 따라서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된다. 당신 가게의 간판은 과연 바람직한 영업사원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간판을 위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 ① **너무 크게 만들지 말라** _ 거리의 보도 폭은 평균 3m여서 간판이 너무 크면 보행자가 한 눈에 보기 어렵다.
- ② **빈 공간을 많이 확보하라** _ 배경이 되는 벽면을 여유 있게 활용하는 간판이 눈에 더 잘 띈다.
- ③ **너무 많이 달지 말라** _ 간판이 여러 개면 전달하려는 정보가 분산된다.
- ④ **원색을 쓰지 말라** _ 건물 색과 대비되는 색이 좋다. 원색 간판들이 모이면 눈만 피로할 뿐이다.
- ⑤ **글씨는 간판 절반 크기로** _ 글씨가 크다고 간판이 잘 보이는 것이 아니다. 배경이 충분할 때 글씨가 눈에 잘 들어오는 법이다.
- ⑥ **글자 크기를 대조시켜라** _ 간판을 통해 먼저 전달할 것이 무엇인지 결정한 뒤 그 내용만 큰 글자로 쓰는 것이 좋다.
- ⑦ **상호는 인상적으로** _ 재치 있는 상호는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 함축적이고 인상에 남는 상호가 바람직하다.
- ⑧ **알맞은 그림을 곁들여라** _ 글씨보다 그림이 더 효과적인 정보전달 수단이다.
- ⑨ **화려함보다는 친근함이다** _ 업소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나치게 화려한 디자인은 거부감을 줄 수 있다.
- ⑩ **보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_ 조형물·벽화·만화 등을 활용해 유쾌한 느낌을 주도록 한다.



요란하지 않으면서 공방과 한복의 특징을 잘 살린 간판.

공주 동헌에서 읊다

백 원 철

공주대학교 교수
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옛 사람들의 문집에는 공주의 빼어난 산천경계를 읊은 시와 함께 동헌을 읊은 시들도 있다. 동헌은 공주 관아의 중심이며 치소(治所)로서 수령이 직무를 보던 곳인만큼, 이곳에 부임한 수령들의 시문(詩文)들이 현판에 새겨져 걸리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 성종 때 문신인 이승소(李承召, 1422~1484)공의 문집 삼탄집(三灘集)에는 공주 동헌을 읊은 시 두 수가 보인다.

옛적 웅진고을에서 다스리던 때에는
전략도 보잘 것 없고 현명한 이도 없었네
만약 화복이 모두 나 때문임을 알았다면
마땅히 흥망조차도 다 하늘에 맡겼어야지
연기 긴 덩불 숲 옛 성터에 우거졌는데
바람에 일렁이는 벼들은 새 논에서 자라누나
금강은 변함없이 안개 속에 물결쳐 흐르나니
고기잡이 늙은이들이 노년을 보내는 곳이라

■昔熊津開府年
謀謨可笑國無賢
若知禍福皆有我
宜把興亡盡委天
烟鎖榛荆多舊壘
風吹穉極幾新田
錦江萬古煙波在
付與漁翁送老焉

위 시는 백제국의 멸망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각에서 읊은 시임을 알 수 있다. 공주가 한때 백제의 도읍이었고, 그 뒤로도 요충지로서 그 역할이 매우 컸기 때문에, 현재 이곳을 다스리고 있는 지은이로서도 감회가 남달랐으리라 생각된다.

문서더미에 파묻혀 세월만 보내다가
술동이 앞에서 좋은 술 저버렸네
계룡산 봄 깊어 꽃은 지천으로 피었고
웅진강 비 개이니 강물은 하늘색을 띠었네
도연명 문간 앞의 버드나무 푸른 잎 돋고
은자의 산골 밭에는 신록이 우거졌네
경치는 저절로 아름다운데 함께할 이 없으니
한가로운 정취는 모두 붓 끝애나 맡기리라

簿書叢裏過年年
辜負樽前酒聖賢
鷄岳春深花似海
熊江雨霽水如天
靑回陶令門前柳
綠滿愚公谷口田
景物自佳無與語
閑情都付管城焉
〈三灘集, 卷四, 十八「次公州東軒詩韻」〉



위의 시 두 수를 지은 이공(李公)은 자(字)는 윤보(胤保), 호(號)는 삼탄(三灘)이며 본관은 양성(陽城)이다. 17세에 진사가 되고 26세에 과거에 제 1등으로 합격하였다. 이후 3장(三場 : 성균관시, 예조시, 전시)에 모두 장원하여 세종의 특별한 지우를 입었으며, 이것으로 인해 집현전에서 8년이나 봉직하였다. 대사성과 예문관 제학 등을 거쳐 43세(1465, 乙酉年)에 충청도 관찰사에 부임하였으니, 위 시는 아마도 이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해 가을에 모친상을 당하여 급히 상경하였으니, 이로써 본다면 이공이 공주에 머문 기간은 1년여에 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공이 지은 시 제목이 「次公州東軒詩韻」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보다 먼저 지어진 「公州東軒詩」가 있음을 알겠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다음으로 10여년 뒤에 역시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던 이육(李陸, 1438~1498)공의 문집 청파집(靑坡集)에도 시 한 수가 실려 있는 바, 다음과 같다.

남쪽 지역의 남은 자취 어느 때부터인가	會稽遺迹自何年
훌륭한 일로 자랑할 것은 태수의 현명함이라네	勝事應誇太守賢
다섯 필 말 타고 부임하니 산은 들을 둘러쳤고	五馬北來山擁野
한 줄기 강물 서쪽으로 흘러 하늘과 맞닿았구나	一江西渡水連天
항우는 망령되게 고향의 정을 말했고	霸王謾說故鄉味
주매신은 헛되이 비옥한 땅을 그리워했다네	翁子徒憐負郭田
좋은 때 고삐 쥐고 탄식하며 돌아가는데	攬轡明時還感慨
봄바람에 돌아보니 눈물이 흐르누나	春風回首涕潸然
	〈靑坡集, 卷一, 「次公州東軒韻」〉

이 지역을 다스리는 방백(方伯)의 위치에 있던 이공은, 무엇보다 직분에 충실하여 훌륭한 업적을 쌓아야 한다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항우처럼 함부로 감회에 젖어 고향으로 돌아가겠대거나, 한나라 주매신(朱買臣)처럼 부질없이 전원으로 물러나고 싶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은이는 오히려 태평시절 성

은을 입어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가게 되었음을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지은이 청파공은 자는 방옹(放翁), 호는 청파거사(靑坡居士)며 본관은 고성(固城)이다. 본래 벼슬에 뜻이 없어 지리산에 들어가 3년간 불출하였으나, 세조 10년(1464), 왕이 온양온천에 들렀을 때 치른 별시문과에 장원한 것을 계기로 출사하게 된 인물이다. 성균관 직강으로 시작하여 대사성, 공조참의를 지내고 성종 8년(1477) 39세의 젊은 나이에 충청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다. 이때 마침 부친(李?)이 괴산군수로 있었는데, 아버가 아들의 지휘를 받을 수 없다하여 부친을 조정에 불러 올려 다른 관직에 임명한 일이 있었다.

이공은 뒤에 강원도, 경상도, 경기도 관찰사를 역임하였으며, 대사헌, 한성판윤 등을 지내며 충직한 관인으로서 이름이 있었다.

또 선조 때의 문신인 구봉령(具鳳齡, 1526~1586)공은 시문에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는데, 공의 문집인 『백담집(栢潭集)』에는 공주 관련 시편이 여럿 실려 있다. 그 중에는 동헌에서 읊은 것이 두 수가 있는데, 그 첫 시는 다음과 같다.

임금의 은혜는 바다와 같고 산과도 같으니	聖恩如海復如山
마른 땅 진펄 내달리며 쉴 틈이 없었네	原隰馳驅不暫閒
세상 다스리는 인재가 못되어 일찍이 부끄러웠는데	匡世非才曾靦目
백성 고통 덜어주지 못하니 또 무슨 낯을 하랴	醫民無術更何顏
계룡산 봉우리 맑은 자태 천년토록 이어지는데	鷄峯霽色千年後
금강 물결 가을빛은 8월의 계절이로다	錦水秋光八月間
해 저문 때 산천을 근심 속에 바라보니	歲暮關河頻悵望
옛 동산에 가리기 더불어 돌아가려네	故園行與雁同還

〈栢潭集, 續集, 卷3, 「公州東軒次韻」〉

위 시는 추측건대, 백담공이 충청도 지역을 안찰할 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공이 병조좌랑 직에 있을 때인 명종 20년(1565, 공 40세)에 충청도 지역이 천재(天災)를 입어 농작물이 큰 피해를 당하였는데, 공은 이 때에 조정의 명으로 충청도의 재해현황을 살피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러므로 시 속에 ‘이곳저곳을 내달린다(原?馳驅)’고 하고, 또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한다(醫民無術)’는 표현이 들어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말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애쓰는 모습과, 백성들의 곤궁함을 시원스럽게 해결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 시는 같은 제목이 붙여진 것이나, 사뭇 그 정조가 다르다.

은 세상 가을빛 속 홀로 누정에 오르니	天涯秋色獨登樓
씻은 듯한 금강이여 남쪽 제일의 고을이네	濯錦江南第一州
지는 해 노을은 퍼져 마음을 깊숙이 잣아들고	落日雲生深洞裏
맑은 밤 하늘 달은 솟아 연못 끝에 솟아나네	澄宵月湧小池頭
당군 성벽의 존폐여 산속은 텅 빈 언덕되고	唐城起廢山空峙
백제국의 흥망이여 강물만은 그대로 흐르네	濟國興亡水自流
감격 속에 끝없이 눈을 스치는 일들이여	感激無窮眼前事
백동이 술 어찌얻어 번거로운 근심 씻어낼까	百壺那得蕩繁憂

〈栢潭集, 續集, 卷3, 「公州東軒次韻」〉

같은 제목으로 지어진 시이나, 앞서의 시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내용을 담는데 비해, 뒤의 이 시는 공주를 백제의 고도로서 생각하며, 역사의 흥망을 읊은 것이라고 하겠다. 아마도 이 시는 백담공이 충청관찰사로 부임하여 지은 시로 추정되는데, 공은 선조 9년(1576, 공 51세) 4월에 부임하여 이듬해 5월까지 1년여 재직하고 내직인 대사간(大司諫)으로 옮겼다.

공이 충청관찰사로 재직 시에는 선정을 베푸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일화가 이를 말해준다.

‘공의 일처리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공평정대하였으며, 사건을 분석하여 처리함이 한 치의 빈틈도 없어서 감히 그 앞에서는 거짓이나 숨김이 통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도내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神明(神明)을 대하는 듯하였다.’ 하는데, 어떤 수령은 관찰사의 공문이 도착하면 향을 피우고 꿇어앉아 읽었다고 한다. 또 한 번은 어떤 고을에서 형제간에 서로 소송하는 일이 있었는데, 공이 직접 불러서 천 료의 정을 들어 간곡히 타이를 때 그만 눈물까지 흘리자, 그 형제들이 감동을 받아서 서로 화해하고, 다시는 서로 다투지 않았다고 한다.

公州의 땅이름 이야기 (16)

장 길 수

— 봉황중학교 교장
— 공주향토문화연구회 회원
— 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위원



II. 땅이름 속에 살아있는 옛 터

7. 정자(터)와 땅이름(3)

4) 정자와 전설

• 꽃바위와 화암정

사곡면 호계리 범재에는 유구천 변에 아름다운 절벽이 있다. 이 절벽 위에는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꽃바위라 부른다. 이 바위 이름에 연유하여 마을 이름도 꽃바위라 부르고 있다.

이 꽃바위에는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가 전해온다.

옛날 옛적에 이 바윗돌 부근에 몇 채의 집이 웅기종기 모여 화목하게 살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한 처녀가 살고 있었다. 이웃 마을에는 건강하고 미남인 늙은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 처녀와 남몰래 사랑을 하게 되었다. 세월은 흘러 두 남녀는 결혼을 하기로 언약

하고 택일을 받아 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청년이 술에 취해 마을 어귀를 돌아가던 중 발을 헛디뎈 그만 물에 빠져죽고 말았다. 그 후 어느 안개 자욱한 새벽에 그 처녀는 바위 위에 두 개의 꽃신을 남겨둔 채 청년의 뒤를 따라 영원히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이 꽃신이 놓여 있던 바위를 꽃바위라 불렀다. 이 처녀의 넋이 꽃으로 화했는지 봄이 되면 진



화암정 유구천 유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자로 알려져 있다.

달래를 비롯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여 꽃바위를 장식하고 있다.

꽃바위는 꽃피라 불리기도 하는데 그 아름답고 슬픈 전설을 되살리듯 그 자리에 정자를 세웠다. 그 정자가 꽃바위에 세워졌으므로 정자의 이름을 꽃바위정자, 즉 화암정(花巖亭)이라 한다. 화암정이 서 있는 바로 아래쪽에 유구천을 막아 보를 만들어 이곳의 경치가 한결 아름답게 되었다. 따라서 화암정은 유구천 유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자로 알려져 있다.

• 유구역루터(유구읍 유구리)

유구읍 유구리 역말에 유구역의 누각

이 있었던 터.

이 역루에는 고려 의종 때의 충신인 좌정언(左正言) 문극겸(文克謙)과 관련된 벽화가 있었다고 한다.

문극겸은 의종에게 충언을 간하다가 왕이 듣지 아니하매, 시 한 수를 남기고 낙향하였다. 그 시는 동국여지승람에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주운(朱雲)이 난간을 꺾은 것이 이름을 구함이 아니며

원앙(袁鵠)이 수레를 막은 것이 어찌 제 몸을 위함이라

한 조각 붉은 정성 하늘이 몰라주니

파리한 말 억지로 몰아 머뭇거리며 물러왔네.



꽃피 전설을 간직한 꽃바위

그 후 유구역루를 새로 중수할 때, 박 씨라는 화공(畵工)이 단청(丹青)을 하다가 벽에다 한 사람이 흰옷에 갓을 쓰고, 말을 타고 산길을 걸어 내려오는 초라한 모습을 그리어 놓았다. 송광사(松廣寺)에 있는 무우자(無右子)가 도려(道侶) 천여 명을 거느리고 서원(西原=淸州)으로 가는 길에, 이곳에서 유숙하다가, 이 그림을 보고 탄식하되 “이것은 간신거국도(諫臣去國圖)”라 하여 유명해졌다. 이 누각은 1909년에 없어졌다고 한다.

• 원수대(웅진동 소정이필)

웅진동 소정이필에 있는 당나라 때 웅진도독부의 터. 백제 31대 의자왕 20년(661)에 소정방(蘇定方)이 신라군과 합하여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의 옛 서울인 이곳에 웅진도독부를 두고 군정을 펼치던 곳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큰 홍수로 인하여 터가 없어졌다고 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이름만 전해 오다가 해방되던 해인 1945년에 큰 장마가 저서 소정이필의 모래를 쓸어 가는 바람에 잠시 그 자리가 들어났다가, 다시 없어졌다고 한다. 소정방의 이름을 따서 정방뜰이라고도 한다. 다만 그 유래비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5) 기타 정자와 땅이름

• 관풍정

옥룡동 서북쪽이며, 국고개 북쪽에 있었던 정자이다. 이 정자는 1936년에 공주 사람들이 궁술(弓術)을 연마하기 위해 세웠던 사정(射亭)이었다. 이 활터는 지금은 웅진동 포정사 앞으로 이전하였다.

• 강정자(江亭子, 태봉동)

태봉동에는 강정리라 불리는 마을이



정방뜰 유래비 소정방의 이름을 따서 정방뜰이라 한다.

있다. 이는 강(태봉천)가에 정자가 있어 그 정자를 강정자라 부르다 마을 이름도 같이 부르고 있다.

6) 정자 이름이 땅이름으로 불리는 행정 지명과 자연 마을 지명

- 정자 이름과 행정 지명(里名)
 - 광정리(←광정, 정안면)
 - 봉정리(←봉정, 이인면)
 - 송정리(←송정, 의당면)
 - 읍정리(←읍정, 의당면)
 - 석송리(←석송정, 정안면)
 - 산정리(←산읍리+행정리, 신평면)
 - 인풍리(←인저원+풍정리, 정안면)
 - 운암리(←운정리+구암리, 사곡면)
 - 금암리(←금벽정+창암, 장기면)
 - 송학리(←송정+학산리, 의당면)
 - 대산리(←대금리+산정리, 정안면)
- 정자 이름과 자연 마을 지명
 - 한림정리(←한림정, 계룡면 유평리)
 - 송정(←송정, 계룡면 중장리)
 - 연정(←연정, 반포면 공암리)
 - 독정(←독정, 의당면 월곡리)
 - 사정리(←사정, 이인면, 목동리)
 - 강정리(←강정자, 태봉동)
 - 백정자(←백정자, 탄천면)

7) 금강가의 8 정자(錦江八亭)

지금도 금강 천리길에는 수많은 정자가 남아 있다. 그 중에 공주 관내의 금강가에 자리했던 정치가 아름다운 8개의 정자를 금강팔정(錦江八亭)이라 일컬어 왔다.

금강팔정(錦江八亭)은 상류로부터 독락정(獨樂亭), 한림정(翰林亭), 금벽정(錦碧亭), 벽허정(碧虛亭), 사송정(四松亭), 쌍수정(雙樹亭), 안무정(按舞亭), 원산정(圓山亭) 등이다.

금강팔정 중, 독락정과 한림정은 연기군에 속한다. 이는 1973년에 장기면 나성리가 연기군 남면으로, 반포면 영광리는 연기군 금남면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팔정 중, 현존하는 것은 독락정(獨樂亭), 사송정(四松亭), 쌍수정(雙樹亭), 원산정(圓山亭), 한림정(翰林亭) 등으로 대부분 폐허가 된 것을 증언하거나 재건한 것이다.

공주를 효의 고장이라 말한다면

— 靑坡 李殷九 도예가



나 태 주

_ 시인
_ 전) 장기초등학교 교장
_ 충남 시인협회 회장

작년도 초여름, 줄장미와 창포꽃이 필 무렵, 같은 교회(공주중앙장로교회)에 다니는 최범수 장로한테서 전화가 왔다. 함께 갈 곳이 있다는 얘기였다. 약속된 장소에 나가보니 또 한 분의 동행인이 있었다. 역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이용주 장로였다. 우리는 셋이서 최범수 장로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이인면 오룡리란 곳으로 향했다. 오룡리는 이괄의 난을 피해 공주로 몽진(蒙塵, 피난) 오신 인조 임금의 아드님인 숭선군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언젠가 그 묘소에 세워진 비석의 거북머리를 보기 위해 한번 갔던 기억이 있는 곳이다.

최범수 장로는 가면서 내내 우리가 왜 그 마을에 가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었다. 그 마을에는 전설적인 효자가 있는데 그 효자의 이야기를 아는 이가 있을까 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가는 길이라 했다. 효자 이야기라?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부담스런 이야기가 효자 이야기이다. 그날 우리는 마을을 돌고 이 집 저집 다니며 사람들을 찾고 말을 걸어보았지만 최범수 장로가 알고자 하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알고 증언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다만 한 두 사람 만나긴 했으나 그들은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자기도 언젠가 들은 적이 있지만 확실히는 모르겠노란 대답일 뿐이었다.

오며 가며 동행한 두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아주 오래 전 이 마을에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한다. 이 소년은 공부도 잘하고 심성이 곱고 행동거지도 바른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아직은 젊은 나이로 중병에 들어 앓고 있는 모친이 있었다 한다. 위로는 누나가 있었고 아래로는 두 살 터울의 남

동생이 있었는데 모친의 병환은 어른들 말로는 주마담(走馬痰, 양성혈관암)이라는 것이었다. 전신의 여기저기에 달걀 크기만큼한 부스럼이 생겨 끝내는 터지게 되



고 거기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까다로운 질병이었다. 어떤 때는 낫대야로 고름을 받아낼 정도로 심했다 한다. 당시는 6·25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적당한 약이나 병원을 만날 수도 없는 시절이었다 한다. 어디서 누구한테선가 소년은 그런 병에는 사람의 살을 먹이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한다. 오래 동안 혼자서 고민을 하던 소년은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던 남동생(이은호 씨)을 시켜 헛간에 꽃아 놓은 낫을 가져오라 하여 자기의 허벅지 살을 얼마만큼 도려내어 동생에게 주면서 절대로 사실을 비밀에 부치라고 부탁을 한 뒤, 그것을 누이에게 전하여 어머니에게 꿏여드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서 소년은 상처난 다리를 형곶으로 쳐매고서 집을 나와 앞산 고개를 넘어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어디론가 떠났다고 한다.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난다. 그 뒤 어머니는 정말로 병환이 나아(꼭 그 이유에서만 아니더라도) 63세까지(1986년도)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한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로 있을 수 있을까? 흔히 사람들은 공주를 효의 고장이라고 말한다. 이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이복(李福)이란 인물의 이야기요, 또 하나는 향득(向得)이란 인물의 이야기이다. 이복은 고려 이전 인물로 집안이 가난하여 모시고 살던 모친에게 드리려고 공주시내에서 국한 그릇을 얻어 가지고 오다가 ‘국고개’란 곳에서 넘어져 국이 땅바닥으로 쏟아져 옆드려 울었다는 사연을 담은 효자요(『신증동국여지승람』이란 책에 기록

이 나옴), 향득(공주 사람들은 향덕(向德)이라고도 부른다)은 신라시대의 효자로 흥년이 심해 아버지가 거의 굶어죽게 되자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 고아드림으로 우리나라 역사책에 최초로 기록된 효자이다(『삼국유사』제 5권 효선(孝善)편). 정말로 오룡리의 그 소년이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좀 무서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신라시대 향득이 다시 태어나 효행을 실천한 일이나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그 날 오룡리를 다녀온 뒤, 그 소년에 대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알고 보니 그 소년은 아주 옛날 인물이 아니라 최근의 인물이었다. 나이도 나와 별반 차이가 없는 1943년 생(계미 생, 양띠)이었다. 이름은 이은구. 이름에 ‘은’자 돌림이 들어가니까 공주 토박이 성씨 가운데 하나인 전주 이 씨이고 현재는 경기도 이천에서 ‘청파요’를 운영하면서 자기를 만드는 이름난 도예가라는 것이다. 기억을 더듬어보니 언젠가 공주문화원에서 열린 ‘청파 도예전’을 본 적이 있다. 거기서 아주 섬세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여러 점 보았다. 우리나라의 도예전통을 충실히 지키면서 현대적인 도예기법을 충분히 살려 만들어낸 지극히 아름답고 섬세한 도자기들이었다. 그러나 그 오룡리의 전설적인 소년과 청파 이은구 도예가가 하나의 인물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지난 2월 중순경이다. 다시 최범수 장로한테서 전화가 왔다. 바로 그 이은구 도예가가 공주에 오니 만나보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연락을 취하여 공주 소학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그 자리엔 오룡리에 함께 갔었던 이용주 장로도 합석했다. 인사를 마치고 바라본 이은구 도예가는 아주 맑은 인상의 인물이었다. 얼굴빛이 특히 맑아보였고 눈빛이 지극히 겸허하며 선해 보였다. 목소리도 크지 않으며 말씀도 자근자근 옆 사람조차 들릴 듯 말 듯 했다. 무척 조용하고 사려 깊은 분이란 느낌이 대변에 왔다. 식사를 하면서 뜬문뜬문 그 옛날의 소년시절의 효행에 대해서 이야기가 돌자 도예가는 될수록 그 이야기를 회피하면서 말머리를 딴 곳으로 돌리곤 했다.

“집 아이들도 그 이야기를 자주 하지 말라 하고 자신의 생각도 그래서……”

도예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느낌이 결코 빛나 가지 않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그 뒤의 대화는 주로 예술과 도예 쪽으로 진행되어나갔다. 도예가는 초등학교 시절, 공주 동학사 아랫마을 도예마을 터로 소풍을 간 길에 거기서 도자기 조각을 보고 도예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한다. 그런 뒤 대학생 시절 도예가 스승(조동헌(曹東憲) 선생)을 만나 도예기술을 사사받고 그 1976년에 이천(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사음리 사기막골)에서 ‘청파요(靑坡窯)’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한다. 그러면서 이천문화원장을 12년간이나 지내기도 했다고 한다. 그의 작품은 국내적으로 우선 알아주지만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높아 일본과 미국에서 개인전을 연 바 있고, 특히 외국의 귀빈이 한국을 방문할 때 선물로 기증되기도 했다고 한다. (국가원수 급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 일본 천황, 중국의 강택민 국가주석, 이봉 총리 등이라 한다.)

마련된 식사를 마치면서 사진을 한 장 찍겠다고 하면서 카메라를 들었다. 도예가는 아주 수줍은 듯 잔잔한 미소를 띠면서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그의 직성이 양띠라 하니 양같이 순하다 할까. 아니면 조선 소처럼 어질다 할까. 드물게 보는 맑고도 선한 인상이다. 마침 우리가 만나서 식사를 하고 있던 지역이 바로 그 신라의 효자 향득의 비석이 있는 곳과 멀지 않는 곳이었다. 역사 속의 효자 향득과 현실 속의 효자 이은구. 신라의 효자 향득이 살던 마을 가까운 곳에서 오늘의 효자 이은구 씨를 만나 그날 그렇게 시간을 보낸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만 같은 생각이다. 함께 만난 세 분과 헤어져 돌아오는 길, 차창으로 보니 향득이 자기 살을 베어 내어 씻을 때 시뻘겋게 피가 흘렀다 해서 ‘혈흔천(血痕川)’이라 불렀던 개울이 보였다. 어제의 일과 오늘의 일이 결코 멀지 않고 가까움을 다시금 느끼며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공주 사진으로 만나는 옛 시간 풍경



김 혜 식
_ 새이학가든 대표
_ 사진작가

들어가며

오래된 시간과 흑백사진은 참 잘 어울리는 듯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적당히 퇴색되고 잊혀 추억 속으로 숨어든다. 어쩌다 가끔 특별한 기억의 끝부분에서 오래된 앨범을 들추듯 가물거리며 떠오르기도 한다. 그러한 대부분의 것들은 잊히는 줄도 모르게 사라지며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사진으로 조우하며 반가워한다. 사진조차 남기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기억을 잃기 시작한다. 가끔씩 지나간 사진을 만나면 참으로 반갑지 아니한가. 그렇지만 공주의 자료사진을 찾아보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에게 카메라는 휴대품이 되고 있다. 디지털카메라의 보급으로 사진천국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고 넘치면 소중함을 잃을 수 있다. 사진으로 인화하는 일이 거의 없어지면서 대부분이 파일로 저장되고 일정 시간되면 파기되기 쉬운 매체로 보관된다. 이러다가는 그 이전의 공주 자료보다 더 빈약하게 남겨질지도 모르겠다. 이에 공주 문화원과 공동 기획하여 공주 모습의 자료를 모아 남기기로 한다. 빠르게 변해가는 공주, 이미 많은 건물과 골목길이 사라지고 있다.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기도 한다. 우리가 뛰놀던 골목이 사라지면 우리의 추억도 사라진다. 건물이 사라지면 추억마저 잃는다. 여기 남겨지는 사진은 대부분 1999년도부터 찍은 사진으로 앞으로 우리의 추억 속에 남겨질 공주 모습이라고 보면 된다.

우선 두 장의 사진, 사라진 마을의 풍경을 소개하면서 ‘사진으로 만나보는 옛 시간 속의 풍경’ 속으로 떠나보기로 한다. 앞으로 시리즈로 소개될 사진은 이미 사라진 건물이나 남아있는 건물 혹은 우리가 뛰어놀던 골목길, 서울로 시집간 옆집 순이가 살던 그 집 앞까지 공주 사람들의 오래된 기억을 더듬을 수 있는 사진이 소개될 것이다. 사진은 연대나 장소의 순서 없이 연재될 예정이며 모쪼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가장 사소하지만 가장 익숙한 풍경들이었으면 한다. 그리고 오래 기억하고 싶은 풍경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은 사라진 성안 마을 | 공북루에서 능선을 따라 영은사로 넘어가다보면 오래된 느티나무가 마을을 바라보고 서있다. 나무 아래쪽 성곽아래 움푹 패인 호를 따라 등산로가 나있는데 거기서 뒤를 돌아보면 나무 사이로 웅기종기 성안 마을사람들이 따듯하게 모여 살던 마을 하나가 있었다. 백제 추정 왕궁지에 70~80여 호가 모여 살다가 사적지 복원으로 모두 이주해 지금은 발굴 작업이 한창이다. 파보니 아주 깊은 연지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물위에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다. 그러나 한때 왕궁지에 왕처럼 살아 본 복 받은 추억을 남기고 갔다.

봉황산에서 바라본 풍경 | 가끔 공주 사람이 공주사진을 볼 때도 낯설 때가 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럴 때에는 제일 큰 건물이나 제일 넓은 길을 기점으로 그려 나가면 된다. 이곳은 봉황산 아래서 바라본 풍경으로 오른쪽 중간쯤에 있는 건물이 봉황초등학교이다. 학교를 기점으로 옆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 사대부고가 나오고 위로 올라가면 시청이 나온다. 그 사이사이 골목으로 이어지는 숲한 길들. 이제 눈감고도 걸어가갈 수 있는 흰한 공주 골목에는 옛 이야기가 남아있다.





적십자 기본이념에 따른 봉사활동 대한적십자사 공주지구 협의회

새봄을 맞은 3월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대한적십자사 공주지구 협의회를 소개합니다.

공주시 교동 122번지(현재 시청별관)의 건물.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이는 양지쪽에 몇몇 노인분들이 일찍부터 오셔서 앉아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 적십자사 공주지구협의회 사무실이 자리한 이곳에서는 무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데, 거의 50여명 되는 노인들이 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실시되는 급식소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당번제로 나와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주지구 협의회는 1988년 5월 10일 적십자 기본이념에 따른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공주 지역 각 동·면에 19개의 소모임이 있으며, 봉사를 할 때에는 340여명의 회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임왕순 회장님과 실무총무로는 김영정 님이 수고하고 있으며, 수시로 일이 있을 때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보건소 이동 목욕차를 운행하여,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병약자 노인들에게 이동목욕 봉사를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봉사자와의 결연을 매월 실시하는데 30세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새터민 정착사업의 일원으로 그들의 도우미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새터민의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 가정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무료 점심식사 제공



봉사 활동 중에 특이할만한 사업이 있는데, ‘밝은 세상 찾아주기’입니다. 안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병원 치료 혜택을 받도록 해줌으로서 좀 더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돕는 봉사입니다.

그밖에도 많은 활동이 있지만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 재난 구호품 전달사업을 합니다.
2. 저소득층에게 매년 4회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백미40kg, 라면1박스)
3. 장애인 지원 봉사활동
4. 지역행사 지원 봉사활동
5. 환경 보호 캠페인을 매년 1~2회 실시합니다.
6. 연말 김장봉사(새터민, 독거노인, 청소년 가장들에게 나누어 줌)
7. 재해, 재난 복구 봉사활동
8. 노인 위안 잔치-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효사상을 고취 하는데 노력합니다.

적십자의 목적에서처럼 주변의 어두운 부분에서, 또는 약하고 소외된 입장에 서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공주 적십자 회원 여러분!

늘 고생하고 수고 하여도 드러내지 않고,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사 자원봉사 회원으로 가입하여 봉사하고 싶은 분들은 손전화 011-437-6905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글|김춘원 명예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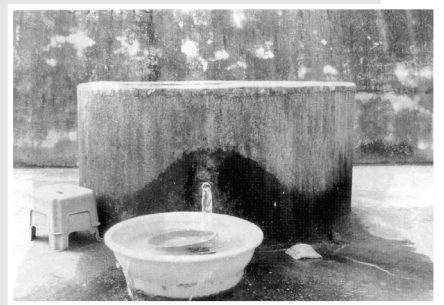


재해, 재난 복구 봉사활동



새터민 정착사업 도우미 지원 교육

의당면 송학리(3)



- 지리적 여건과 지명의 유래
- 충신(忠臣) 유지걸(柳智傑)
- 마을 주민들의 정신적인 어른 유기량
- 몸티의 향나무
- 마을 신앙의 집성촌 송학리
- 송학의 두레
- 거북바위의 전설과 지명
- 지금도 사용되는 들말의 동네 샘
- 신행정복합도시 주변지 마을

전통신앙이
살아 숨쉬는 마을
전통신앙이
살아 숨쉬는 마을

〈향나무제〉

몸티의 향나무제는 두 종류가 있었다. 첫째는 개개인이 올리는 것으로 이 나무에서 치성을 드리면 득남을 한다는 믿음으로 올려지는 고사였고 또 하나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동고사다.

1970년대 이전에는 『몸티 향나무가 없으면 조상님의 제사도 모실 수 없다』는 말을 공공연히 할 정도로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에 사용되는 향불용향을 이 나무에서 얻어 썼기 때문에 『향나무를 위해야 한다』는 공동 관심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이러한 영향이 향나무를 대동고사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마을 대동고사인 향나무제에 대해 노인들의 증언이 갈리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몸티 주민 전체가 올린 향나무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 마을에서 80년 이상을 살아온 노인이 제사를 올리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닌데 일부에서는 1960년대까지는 분명히 지내던 것을 5.16 후 미신타파를 부르짖는 공무원들 때문에 중단하였다가 3년 연속 젊은이가 죽는 일이 발생하여 다시 올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몸티의 향나무에 대한 대동고사가 지내졌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노인들의 증언과 현재 추진되는 방법에 따라 유

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므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몸티의 향나무제는 지금도 다른 마을의 대동제와 다른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별도의 유사를 정하기보다 정해진 마을 사람 몇 명이 돌아가면서 유사를 맞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종교적인 문제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인데 60년대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재원이다. 이 부분도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걸립을 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뜻을 둔 몇몇 인사가 추렴을 하여 제례를 올린다. 이 또한 예전에도 마을 전체의 걸립을 하지 않고 뜻이 있는 일부 인사가 추렴을 하여 제사를 올렸다 한다.

셋째, 마을의 대동소지가 올려지지 않고 제례에 참여하는 사람의 소지만 올린다. 대동고사에서 간혹 대동소지를 올리지 않는 마을은 있지만 일부만 올리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특이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면과 산신제 장승제 거리제와 서낭제는 올리지만 나무고사를 올리지 않는 의당면의 대동고사의 흐름을 살펴 유추할 때 앞서 말한 농기고사가 마을을 대표하는 고사라서 향나무를 신성시하던 기운이 약해지고 『팽나무



가을 수확이 끝난 학미 앞 들녘

밑에서 서낭제는 올려도 팽나무에는 고사를 올리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인하여 향나무의 대동고사를 지내는 동계(洞契)가 서지 못하고 뜻을 함께하는 일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변형된 마을고사가 올려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현재 올려지는 향나무제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한해에 한 명씩 젊은이가 죽는 일이 벌어지자 마을을 지켜주는 향나무를 위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마음으로 구본태 씨와 유남휘 씨가 중심이 되어 고사를 계획하고 마을 사람들의 추렴으로 재원을 만들어 지내기 시작하였다. 지금도 이 마을의 유사는 정초에 몇몇 사람이 모여 정하고 젊은이가 적어 생기복덕을 따지지 않고 정월 대보름에 올리며 제례의 의식은 유교식이다.

■ 은곡과 몸티의 깃고사

송학리에는 모두 4개의 농기가 섰던 것으로 보여진다. 은곡, 학미, 들말, 몸티의 네 마을에 농기가 있었다. 이는

바꾸어 말해 송학의 두레가 넷이었다는 말이 되는데 은곡을 제외한 세 마을의 농기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기본기였고 은곡은 신농유업(神農遺業)의 신농기였다.

이 중 은곡의 농기는 아직도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관리되고 있으며 들말, 몸티, 은곡은 농기고사를 지낸다.

몸티의 깃고사는 앞서 설명한대로 장승제를 지낸 끝을 물어 올리는 몸티는 향나무제를 지내고 마을에서 올리지며 은곡은 다른 제례와 별도로 단독의 깃고사를 올리는 것이 다르다.

또 한 가지 농기와 관련하여 이 마을은 다른 마을과 다른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주시 일원의 마을이 농기를 세울 때 인근의 두레와 격을 따지는 경향을 보인다. 농기의 서열은 용이 그려진 용담기, 신농유업의 신농기, 농자천하지대본의 대본기, 동작서성(東作西成)의 동서기 순이며 이는 두레의 크기 본동(本洞) 여부 등을 따져 그 마을에 맞는 농기를 세운다.

이러한 관례로 살펴본다면 당연히 신농기는 들말이나 학미에 있어야 한다.

본동으로 보면 들말이고 학자나 큰 인물을 배출한 곳은 학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송학에서는 마을의 규모가 앞서 말한 두 마을보다 확연히 작은 은곡에 있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마을 단독의 대동고사로 올려지는 은곡의 깃고사가 현대로 오면서 간략하게 생략되어 옛 원형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며 몸티와 은곡의 농기고사의 규모와 격식은 들말의 농기고사와 유사하다.

송학의 두레

송학리의 두레는 들말, 학미(창말, 송정), 몸티, 은곡의 네 두레골이다. 한마을에 두레가 많으면 서열을 정하고 서열 문제 때문에 잦은 두레 싸움을 하게 마련인데 몸티두레가 〈벼슬한 농기〉를 보유하고 세 마을 농기의 절을 받는 형편이어서 몸티두레보다 규모가 큰 들말두레나 학미두레와 싸우는 일이 없었던



송학리 마을 앞을 흐르는 궁천의 모습

것으로 보인다. 은곡두레는 마을이 외진 곳에 있는 영향으로 마을 안 두레 간에 싸움이 없어서 이웃 마을과 사이 좋은 두레였다. 그리고 송학리의 네 두레는 용현두레나 태산 가산 두레와 싸울 때 네 두레가 연합하여 싸움에 임하여 규모가 작은 것을 극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들말 두레는 1970년대까지 활동하고 모심는 날을 잡고 품삯을 정하는 것은 1980년대 중반까지 행하였으나 나머지 세 두레는 1970년대 초반 모두 소멸되었다.

송학의 네 두레는 논매기만 행하는 한물두레다. 봄두레는 전통사회에서는 음력 4월 하순에 하루 택일을 하였으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음력 삼월 삼짇날 주변에 못자리 행해지는 정도를 보아가면서 날을 잡아 행하였다. 봄두레 먹는 장소는 마을 앞 냇물 가였고 정자나무 밑에서 하는 몸티만 체알을 치고 행하였으며 못날 잡기, 두레 일정 조정, 당해연도 품값 결정, 팽배 결정, 전년도 두레의 재정 결산 등 다른 마을보다는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기능을 행하였다.

■ 송학리의 품삯

- 장정의 품-백미 3되(고지는 5되).
- 부녀자의 품-전통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일제 강점기 이후 모내기

온품, 그 밖의 일은 반품 인정

- 소(牛)품-장정의 2품(소 먹이 별도 제공).

- 선일꾼(소몰이하는 일꾼)의 품-장정 1품

- 반품-평배에 들지 못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정하던 품

- 고지-선고지는 모내기 마지기 당 김매기 3회 모두 각 백미 5되로 이를 합하여 마지기당 쌀 1두로 거래됨. 일반 품고지는 장정의 품삯에 준하여 3일에 백미 1두로 하되 삭고지라 하여 음식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함.

- 평띠기-이른 봄 합배미 치는 일에 한하여 기준 백미 1두로 거래됨.

■ 평배 결정

평배란 두레의 성년식과 같은 의미. 청소년의 나이 17~18세에 평배에 들면 장정과 품앗이를 하고 일반적인 품

삯을 받고 일을 다닐 수 있음. 평배에 들기 전 15~16세의 청소년들은 반품이라 하여 장정들의 절반의 품삯으로 품팔이와 품앗이를 하는 차이가 있음.

평배에 들기 위해서는 두레 좌상과 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를 얻어내면 막걸리 대두 1말을 봄두레 먹는 날 공동의 먹대로 제공하여야 함.

■ 두레 일정

1) 여름두레를 세우는 날

즉 두레 공동의 작업으로 논매기를 시작하는 날짜를 의미하는데 대부분 당해 년도의 물 사정과 여름두레 먹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음력 6월 그믐 주변 하루를 선택하여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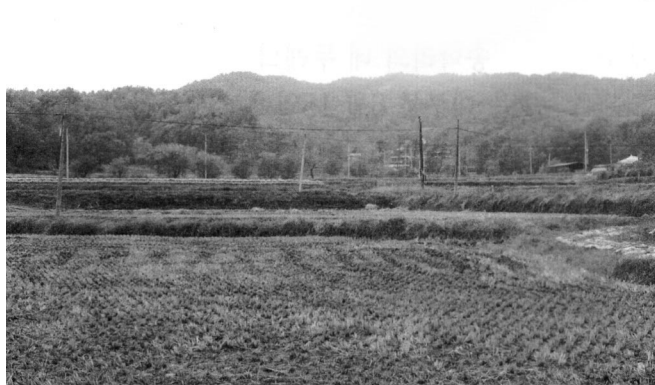
2) 여름두레를 먹는 날

칠석(음력 7월 7일)부터 백중(음력 7월 15일) 사이의 하루를 정하여 여름두레를 먹음. 단 두레논매는 공동작업이 날씨 등의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 애당초 정한 날짜를 변경하여 행하기도 함.

송학리의 네 두레의 여름 두레 공동 작업은 대부분 6월 15일에서 그믐 사이 정해진 날에 공동의 논매기를 시작한다. 이 마을에서는 이를 <두레를 세운다>라고 표현한다.

여름두레의 일정은 두레를 세우는 날에는 마을 장정들이 알도록 풍장패가 아침 일찍 마을 앞 공터에서 풍장을 울

거북바위 앞에서 바라본 창말의 전경



리기 시작하여 두레마당인 들판으로 이동하는 것부터 시작되며, 장정들이 모이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논을 맨다. 두레꾼들의 먹매는 각 가정에서 모두 각자 부담하기 때문에 끼니와 참이 되면 마을의 모든 가정에서 아낙네들이 각각의 음식을 머리에 인 아낙네들이 들녘으로 향한다.

공동작업으로의 논매기가 끝나는 날에는 두레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마을 공동으로 준비한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으며 하루를 즐기는데 이 날을 여름두레 먹는 날이라 칭한다. 칠월 칠석과 백중 사이 하루를 잡아 행하는 여름두레 먹는 날은 공동작업으로 벌어들인 재화를 장정들이 출력한 날짜에 맞추어 나누며 네 마을 모두 두레 좌상과 공방이 이를 주관하였다.

한해 여름 농사가 끝나는 것을 자축하기 때문에 마을의 행사로는 대동고사 다음으로 큰 행사일 수밖에 없었으며 네 두레 모두 두레먹는 날 행사를 시작하기 앞서 농기에 잔을 올리는 깃고사를 봉행하였다.

두레 조직은 평범하다. 두레를 대표하는 좌상과 두레꾼을 현장에서 통솔하는 공원, 그리고 현대의 개념으로 회계에 해당하는 재무공원이 각 1명, 총각들의 대표 역할을 하는 총각대방이 1명, 두레판의 어른들의 심부름꾼인 평배 또한 각 1명이었다.



두레 풍장의 규모는 네 마을이 각기 달랐으며 규모가 가장 큰 들말 두레 풍장의 경우 상쇠, 부쇠, 징이 각 1명, 장구, 북이 각 2명, 북구 5명, 꽃나비 2명 1조, 농기 4명, 흑백령기 2명의 기수와 새납 1명, 두레 풍장꾼을 선도하는 길나래비 1명이며 잡색은 네 마을 모두 없었다.

두레 풍장가락은 평이하다. 세마치, 잣은마치, 춤장단 세마치, 굿거리 정도이고 두렁거리는 보이지 않으며 칠채몰이(칠채형의 잣은마치)는 생략되어 연주되었으며 지금은 치는 사람이 없다.

거북바위의 전설과 지명

19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인하여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지만 창말의 앞 쪽에는 거북을 닮은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로 인하여 이곳의 옛 지명이 구암(龜岩)으로 불릴 만큼 마을에서는 상징적인 존재였는데 아쉽게도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 바위에는 동해 용왕(龍王)의 명(命)을 받아 지상 최고의 명당(明堂)을

언제나 같은 양의
물이 나는 동네 샘



찾아다니던 거북이의 설화(說話)가 전해진다. 용왕이 자신이 죽은 후 지상에 무덤을 지을 생각으로 명당을 찾다가 물으로 나올 수 있는 거북이에게 명하여 지상에서 가장 빼어난 명당을 찾아 자리를 잡아 놓고 오라 하였다.

깊은 동해 바다에서 나온 거북이는 조선 팔도를 모두 살피고 다녀도 용왕의 무덤을 지을 명당을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송학에 왔을 때는 기력이 쇠진하였는데 그제서야 명당의 기운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조금만 더 가면 명당이 있을 것 같은데 더 기어 올라갈 힘이 떨어진 거북이는 예전의 거북바위가 있던 자리에서 죽어 바위가 되었다 한다.

그런데 거북바위가 생긴 이후 송학에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외지에서 이 마을로 상여가 들어오면 모두 거북바위를 넘지 못하고 탈이 생겨 송학에 뒤편자리를 잡았던 상주들이 묘를 쓰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거듭 발생한 것이다.

거북이가 잡아 놓은 명당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이 찾지 못하여 쓰지 못했다는 소문을 들은 정승이 용한 지관을 보내 명당터를 잡아 놓고 자기 조상의 묘를 쓰기 위해 상여를 메고 이 마을로 들어섰다. 그런데 상여가 막 송학리에 접어들었을 때 상여에 벼락이 떨어지는 바람에 상두꾼들이 메고 오던 상여는 바위가 되었고 그 경황에 혼백을 모시

는 조이들이 하늘 높이 날아와 들말 앞 산자락에 떨어졌으며 선소리꾼이 흔들던 요령은 몸티 앞산에, 그리고 시신(송장)은 마을 앞산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 마을에는 지금도 <상여바위> <조이들산> <요령바위> <송장산>이라는 지명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마을의 노인들은 거북이가 본 명당이 있어서 언젠가는 역사가 기록할 큰 인물이 이 자리에 와서 묻힐 것이라고 믿고 있다. 조이들산은 발음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조털산> <조틀산> 등으로 불리는데 원명은 조이들산이다.

지금도 사용되는 들말의 동네 샘

마을의 형성 과정에서 우물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 마음 놓고 먹고 쓸 물이 있어야만 마을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송학리에는 동네 속의 작은 마을마다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서 가뭄에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다. 몸티의 가운데 샘, 들말의 동네샘, 창말의 윗샘 등이 그것인데 1970년대 농촌환경의 개선과 기계 우물 굴착기술이 좋아지면서 하나 둘 사

라지기 시작하여 지금은 들말의 중심에 있는 하나의 동네샘만 남아 있다.

들말의 동네샘은 어떤 가뭄에도 물이

마른 적이 없고 홍수가 저도 물이 더 나지 않는 용천수(龍泉水)다.

들말에는 현대의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가정마다 소형 관정을 파서 가정용 수도를 설치해서 사용한다. 이 경우 기계로 지하수를 파면 지하의 수맥을 해쳐 용천수가 마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들말 모든 가정에서 호별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 우물이 마르지 않아 아직도 동네의 아낙네들은 허드렛물을 사용할 때는 이 우물가에 모이고 정월이면 샘을 품고 새물을 받으며 샘고사를 지내고 있다.

더구나 물의 양이 많아서 들말 앞의 논농사에 이용되는데 한섬지기 이상의 논에 매년 동사가 가능하여 용샘 앞에 논을 사면 남이 보지 못하는 밤에 논가에 나가 춤을 추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신행정복합도시 주변지 마을

이 마을은 공주 연기 일원에 건설될 신행정복합도시의 주변지 서쪽 끝부분에 해당하는 마을이다. 의당면에서는



우물 앞 정자에 모인 들말 사람들. 채록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마을을 포함하여 7개 마을이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마을에 많은 변화가 보이고 있다.

첫째는 앞으로 이 지역이 그린벨트화 될 것이 예견되면서 몇 개의 공장이 이주해 왔고, 몸티마을 앞 야산에는 송학전원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마을이 조성되었으며, 국도변으로는 신행정복합도시 내에서 살다가 이주대상이 된 장기면과 연기군의 이주민들이 이주해 오고 있다.

결국 몇 년 사이에 현대식 주택들이 급속히 늘어나 마을이 커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우를 키우는 축사단지도 신축되어 새로운 자연마을이 생기는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주변지로 선정된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미 건축물의 신축이나 생활기반시설의 건설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변지라는 부담이 마을의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현판

지극한 정성으로 효를 실천한 효자
孝子 松亭 정이재(鄭以載)선생
(1679~1713)

무릇 효는 온갖 인간행실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써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천성(天性)으로 효를 행하게 되는 것이요 배우고 가르쳐야만 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

본디 사람의 본질(本質)과 품성(品性)은 같지 않다. 성인(聖人)이 천지(天地)의 이치(理致)를 말씀할 적에 효행(孝行)으로써 모든 행실의 근본으로 삼고 법(法)을 만들어 죄목(罪目)을 정할 때 불효(不孝)함이 가장 크다고 하시었으니 이는 효행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德目)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 선인(先人)들이 사람으로서 행하는 바가 옳은 길에서 벗어나면 악평(惡評)을 하여 말하되 팔도(八道)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 하고 오륜(五倫)과 의리(義理)를 버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효행(孝行)과 덕의(德義)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정문을 지어서 표창하여 좋은 풍속(風俗)은 서로 권하고 지켜왔던 것이나 예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효행으로서 이름을 떨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우리 고장에서 태어난 분으로 효성(孝誠)이 지극하여 지방 사람들은 물론 조정에까지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던 효자 정이재공(孝子 鄭以載公)을 소개하는바 공은 조선 숙종 때 사람으로 자는 춘원이요 호는 송정이니 동래인으로 연산군 때 폭정을

삼가토록 상소를 올렸다가 귀양까지 갔던 강직하기로 이름난 중종 때의 명상 영의정 문익공 정광필의 6대손이다.

동래 정씨는 효와 충절과 문장과 덕행에 이름난 재상과 높은 벼슬이 면면히 계승되어 조선시대에만도 재상 17명, 대제학 2명, 호당 6명, 공신 4명, 판서 20명과 문과 급제 203명을 배출한 명문거족으로 재상수로는 왕손 전주이 씨에 버금간다.

동래 정문의 가풍은 「무편무당(無偏無黨)」인바 언제나 한 쪽으로 기울지 않고 중용의도를 지켜 이웃과 화합하고 적을 삼지 않은 온화한 기품을 계승하는 것임에 많은 현신들을 배출했으면서도 국훈을 삼가, 딸을 단 한 사람도 왕비나 후궁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등 권력에 아첨하지 않고 곧은 선비의 길을 걸어 동방의 갑족이라 칭함을 받은 으뜸 가문이다.

이처럼 훌륭한 가문(家門)에서 태어난 공은 어려서부터 자라날수록 재주와 그릇(爲人)됨이 남다르고 너그럽고 온후 인자하여 능히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알아서 부모님 말씀에 어김이 없었고 섬기기를 지성으로 하여 오던 차 나이 열세 살 때에 자친의 병환이 위중해짐에 주야로 주무시지 아니하며 약을 쓰고 하늘에 축원하여 극진히 모셨으나 더욱 위급한데 이르러서는 손가락을 잘라 나오는 피를 입에 넣어서 거의 돌아가신 자친을 희생케 하

효자(孝子) 정이재(鄭以載)공의 정문
소재지 :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였으니 이는 필경 평소 마음에서 우리나라 효성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자연적으로 발로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리라.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그 후 집안에 길한 징조가 있으려면 상처 부위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장차 흥한 징조가 있으려면 그 빛이 변하거늘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어 이를 효감의 소치라 하였다 한다.

성장한 후에는 부모를 봉양하되 조식으로 몸을 편안히 쉬도록 하며 문안하고 음식을 맛갈스럽게 하여 열심으로 공경하며 지성으로 섬겼다.

또한 차후에 부친의 병환이 위중하여 약시중을 하던 차 부친께서 생선을 잡수시길 원하셨으나 때는 마침 엄동설한임에도 공이 금강의 하류인 탄천 분창강에 가서 생선을 구하려 어부를 찾아 물어보니 강이 얼어서 어렵다거늘 공이 초조하고 근심스러워 방황하니 우연히 얼음 녹은 곳에서 잉어가 뛰어나와 잡게 되었다고 한다.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풀이 난다는 격으로 이는 하늘도 감동하고 땅도 감동한 것이리라. 공이 천지신명께 감사하여 가지고 와서 부친에게 귀한 음식을 만들어 드리니 병환의 차도가 보였다. 마을사람들이 말하기를 잉어가 얼음위에 나타나는 것은 공의 효성에 천지신명이 감동한 것이거늘 어찌 예전 중국사람 왕상이 얼음 속에서 얻은 잉어 이야기만을 아름다운 일이라 하리요 하더란다.

이처럼 효성이 지극했던 공은 부모상을 당하여서는 삼 년 동안 산소 옆에서 움막을 치고 슬피 생활하며 자신을 돌보지 않은지라 점

차 기혈이 쇠약해져 병을 얻음에 의약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삼년복을 벗은 뒤에 얼마 되지 않아 공이 세상을 뜨니 아! 슬프고도 애통하도다 계묘년 정월 초사를 날로 그때 겨우 향년 삼십 오세라. 이 고장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입을 모아 말하기를 효성과 덕망이 하늘처럼 높았거늘 이분을 표창하지 않으면 누굴 표창하리요 하더라.

이에 이런 사실을 지방사기에 기록해야겠다고 뜻을 같이한 사람이 이백여 명에 달함에 관찰사에게 글을 올려 숙종대왕 시절인 경자년에 조정에서 특별히 재목을 내려줌에 정문을 만들어 효자를 표창하고 널리 알리게 되니 고장 사람들이 이는 동래 정씨의 한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 고장의 영광이라 하여 칭송이 자자했다 한다.

예부터 효와 충은 같은 뿌리요 충신의 가문에서 효자 난다더니 과연 효제충신의 가문이 아니런가! 한 가지 후세의 자손으로서 못내 안타까운 것은 공이 노성 유봉 문성공명재 윤증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윤리지학에 힘써 영특하고 박학하였음에 선생은 아낌없는 찬사와 사랑을 받은 이로서 다소의 저서나 시문을 남겼을 것으로 보이나 영체하고 빈한한 자손들이 수습하여 간직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병화로 말미암아 유서를 전부 분실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는 도다.

한때 국영 텔레비전 방송에도 소개된 바 있고 지금도 이 고장 사람들에게 효자촌으로 불리는 효자 정이재공의 정문이 세워진 곳은 탄천면 삼각리. 탄천 면사무소 앞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시정소식

국회의원, 도의원 초청
시정간담회

공주시가 지난 2월 11일 오전 11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준원 공주시장, 심대평 국회의원, 박공규 도의원, 전인석 도의원, 이선자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올해 시정 전반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주요 시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 건의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를 구했다.

특히, 지역 현안사업으로 공주시가 시행하는 신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고마복합 예술센터 건립사업 등에 정부예산이 적극 반영되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우성간 도로 확·포장 사업, 청양~우성간 도로 확·포장, 봉정~방문간 우회도로 개설사업, 금강 살리기 사업,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조성 등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밖에, 이날에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2009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공모사업에 공주시가 지난달 '공주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로 신청한 공산성 및 금강변 환경개선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공주사랑상품권,
지역경제 살리기 일등공신

공주시가 지난해 3월, 공주지역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해 도입한 공주사랑상품권이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등공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현재 공주사랑상품권이 발행액 대비 66%인 총 9억 3,000만원이 판매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공주시 공직자들의 도움이 크게 작용했으며, 이미 지난해 3월 1일 공주사랑상품권을 통용실시에 발맞춰 상품권 판매활성화를 위해 공직자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구매운동을 벌여 지역 소비촉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연말에 부서 및 읍·면·동 행정평가에서도 상품권 구매실적을 반영하는 한편 각 부서의 시책추진시 상품권을 이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공주시청 체육팀 발대식

양궁팀 5명, 역도팀 6명 등



시는 지난 2월 13일 오후 2시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준원 공주시장, 심대평 국회의원을 비롯 시의회 의원, 체육회 임·직원, 선수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시청 체육팀 발대식을 갖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총 2팀으로 구성된 공주시청 체육팀에는 제29회 베이징올림픽 양궁스타인 박경모 감독겸 선수를 비롯해 양궁팀 5명, 역도팀 6명 등 국내 유명 선수와 유망선수가 대거 포진했다.

특히, 제29회 베이징올림픽 남자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에 빛나는 박경모 감독이 이끄는 양궁팀에는 제26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 개인전 3위의 김원섭 코치가 코치 겸 선수로, 같은 대회 단체전 2위에 빛나는 장세희 선수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유망선수들로 구성된 역도팀에는 최재규 코치 아래 제89회 전국체전 용상 2위의 윤민희 선수, 3위 계정은 선수, 제89회 전국체전 합계 3위의 이재은 선수 등 미래의 꿈나무들이 포함됐다.

공주시,
오는 4월 시민자전거 탄생
시민자전거 무료 대여소 10곳과
시민자전거 120대를 확보해
24시간 운영

이르면 오는 4월이면 공주시에서 시민자전거가 탄생한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주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자전거 운영계획을 마련, 오는 4월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는 3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시행에 발맞춰 4월중으로 시민자전거 무료 대여소 10곳과 시민자전거 120대를 확보, 24시간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시민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연차별로 3년 안에 총 1,000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자전거 천국'을 지향하는 공주시에서는 앞으로 시민자전거를 언제든지 무료로 빌려 탈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민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강둔치공원 등 17개소의 자전거 보관대 정비와 함께 기관, 상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가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시민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따라서 공주시민들에게 자전거를 이용한 레포츠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시, 이웃사랑 성금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희망 2009 이웃사랑 성금모금
캠페인’ 서 총 6억 3,135만원 모금



성금모금 행사기간 내내 기업체의 성금모금을 비롯해 유치원 어린이부터 칠순노인에 이르기까지
지각계층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희망 2009 이웃사랑 성금모금 캠페인’ 행사에서 공주시가 탁월한 성금모금 실적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나눔, 세상을 바꾸는 힘!’이란 슬로건 아래 진행된 ‘희망 2009 이웃사랑 성금모금 캠페인’에서 총 6억 3,135만원을 모금하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모금한 5억 3,054만원보다 19% 증가한 금액으로,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기관·단체·기업체·시민들이 십시일반 함께 참여해 이뤄낸 성과로 해석된다. 참여인원도 지난해 5,438명보다 32% 증가한 7,209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12일에 개최된 현장모금 행사에는 시민의 발길이 줄을 이어 행사당일만 6,600만원의 성금을 모금하는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분위기를 크게 고취시켰다.

공주시, 마을회관 27곳 태양열사업 추진

4억 8,000만원 투입, 68%의
에너지 절감효과 기대

공주시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태양열설비 시범설치사업을 추진한다.

공주시는 올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태양열 설비로 지역 마을회관과 경로당 17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양열 설비 시설은 1개소 당 2,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국비 60%, 시비 35%, 마을부담 5%(150만원)이다.

시는 지난 2월초 수요조사결과 29개 마을이 신청, 이중 엄격한 심사를 통해 17개 마을을 지원 시범대상으로 우선 선정했으며, 추경예산을 확보해 10개소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태양열 설비를 보급, 온수공급, 난방보조시설로 활용해 화석연료 사용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약과 함께 대기환경 개선으로 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연간 2,000ℓ의 보일러 등유를 사용하는 마을회관의 경우 집열면적 30㎡ 규모의 태양열 설비를 설치하면 60만원으로 줄어 126만원의 절감(68%)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올 9월 착공



지난 2월 27일 공주시청 소회의실에서 가진 이날 워크숍에서 관계자들은 분야별로 통일된 체계 하에 발빠른 사업을 펼칠 것에 동의하면서 사업추진 방향, 산업단지 용수공급 노선협의, 조속한 국비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토론을 벌였다.

공주시가 탄천면 안영리·덕지리 일원에 추진 중인 탄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올 9월쯤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탄천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7월 충남도로부터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은 후 1,578억원을 들여 중부권 최대인 996,865㎡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75%의 토지보상을 마치고 진입도로 개설, 용수개발,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막바지 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워크숍을 갖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용수는 탄천일반산업단지-부여 석성정수장간 8.4km 구간을 400mm 관으로 연결해 공급받는 것으로 했으며, 남는 물은 인근 지역에 공급기로 해 인근 주민들도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탄천산업단지 조성은 오는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음식료 제조업, 기계·장비, 조립금속, 전기·전자·통신장비 등 총 70여개 업체를 유치해 입주시킬 계획이다.

공주시, 도로명과 주소 새롭게 바뀐다

오는 2012년 새주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의 조기완료에 박차

시에 따르면, 오는 2012년 새주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새주소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해 올해 공주시 전 지역에 대한 도로명판 설치, 건물번호 부여 등 새주소 부여 시설물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까지 유구읍, 반포, 장기, 의당 등 지역의 D/B 구축작업을 완료하고, 새 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884개소 도로명에 대한 도로명판 설치작업이 한창이다. 또, 도로명판 설치완료와 함께 해당토지의 건물번호에 대해서는 오는 5월말까지 설치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시는 이번 새주소 사업에 의해 부여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의한 고지·고시 등 시민들의 사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새주소 번호 부여사업이 완료되면 공주시 〇〇동 〇〇번지는 공주시 〇〇길로, 읍·면지역은 〇〇(읍)면 〇〇리 〇〇번지에서 〇〇(읍)면 〇〇길로 새롭게 바뀌게 된다.



내고장소식



2009 내나라 여행 박람회, 공주시 홍보관 인기

지난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열린 2009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 공주시 홍보관이 각종 이벤트 행사로 관람객에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기간 동안 2,000여명의 관람객이 공주시 홍보관을 찾아 지난해 제 54회 백제문화제 행사기간 중 선발돼 큰 인기를 끈 백제 무령왕, 왕비, 왕자와 공주가 입은 의상을 입고 즉석사진을 찍어가는 등 관람객에 큰 인상을 남겼다는 후문이다.

이번 행사에서 공주시는 전국적 명성을 얻은 공주알밤 1,000봉지, 기념볼펜 3,000여개, 5도2촌 주말도시 사업, 사이버시민제 등을 담은 홍보물 5종 3만부를 배부하는 등 문화관광의 도시 공주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충남관광홍보전, 대구국제박람회, 수도권 홍보전 개최 등에 참가, 오는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공주에서 개최되는 제 55회 백제문화제, 사이버 공주시민, 5도2촌 주말도시 등 공주 알리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공주농업대학 졸업식 열려 3개 학과 84명이 졸업

지난 2월 11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이준원 공주시장, 심대평 국회의원, 김태룡 공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관 기관 단체장, 졸업생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농업대학의 졸업식을 성대히 거행했다.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친환경리더학과 등 3개 학과 84명으로, 이날 정안면 전평리 김재환 씨가 농촌진흥청장상을, 신관동 이순희 씨가 충남도지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정안면 어물리의 김선희 씨, 신평면 동원리 이춘호 씨, 신관동 안영순 씨가 공주시장 표창을 받았다.

김재환(농촌관광체험학과, 54세) 총학생회장은 “농업대학이 공주농업을 선도할 정예농업인을 양성하고, 경영, 유통, 마케팅을 통한 공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수한 강사진에게 수준 높은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주시 장학증서 수여식

학업우수 장학생 142명에게
총 2억 100만원의 장학증서를 전달

공주시한마음장학회는 지난 2월 24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준원 공주시장을 비롯해 고광철 공주시의회 부의장 등 장학회 임원, 장학생 학부모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장학회는 고등학교 학업우수 장학생에게 100만원씩, 대학 재학생에게 200만원을 전달하는 등 학업우수 장학생 142명에게 총 2억 100만원의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또한, 장학회는 이달 안으로 이·통장자녀 장학생, 복지장학생 등 80명에게 대한 장학증서를 최 일선 읍·면·동장을 통해 총 6,000여만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학회는 오는 2분기에 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한편 3분기에 새마을자녀장학생을, 4분기에는 특기 장학생을 선발 지원하는 등 활발한 장학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이준원 공주시장은 격려사에서 “열심히 학문을 갈고 닦아 훌륭한 지역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한마음장학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장학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시, 다문화가정 한국음식 조리실습 교육

농업선진화를 추구하는 공주시 농업기술센터가 한국문화, 음식에 어색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음식 조리 교육을 펼쳐 관심을 끌고 있다.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성)는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 조리 실습실에서 공주지역 거주 다문화가정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농촌정착과 행복한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의미 있는 한국음식 조리실습 교육을 가졌다.

이 기간 동안 혼인 및 귀화여성들은 한국의 봄나물,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한국의 전통음식을 만들어 보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교육을 담당한 농업기술센터 정홍숙 생활기술담당은 “소비자의 식단과 가정의 경영을 책임질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정서적 안정과 빠른 적응을 돕고 한국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고장소식

“공주 관광은 우리가 책임진다”

민중심, 공주시관광진흥협의회 창립
관광사업자, 단체 등으로 힘찬 가동



공주지역의 민간 관광사업자, 관광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주시 관광 진흥 협의회가 탄생했다.

공주시 관광 진흥협의회(회장 송석린)는 지난 2월 24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준원 공주시장, 김태룡 공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공주지역의 민간 관광사업자, 관광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문화관광의 도시인 공주시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힘찬 가동을 시작했다.

총 110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민간 중심의 관광 진흥을 위한 협의·자문, 사무집행기구로써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단체 등의 상호교류, 협력증진을 담당하게 된다.

또,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한 홍보, 마케팅 등 공동문제를 협의·추천하고 지역 관광 진흥 홍보, 마케팅 지원,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지원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주시, 주차헬퍼(Helper) 사업 추진

“주차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주차헬퍼 도우미’가 해결해 드립니다.”



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선진 주차문화 확립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차헬퍼(Helper) 사업을 펼쳤다.

오는 10월까지 실시될 이번 사업에 시는 지난해 9명이었던 ‘주차헬퍼’ 도우미를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24명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주차헬퍼 도우미는 주 3회 1일 4시간씩 3개반으로 강남지역, 강북지역의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배치돼 불법 주·정차 홍보물 배포 등 계도 활동과 교통소통 방해차량, 장기 주·정차 차량 신고, 인근 공영주차장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주차 문제를 단속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피하고, 시민 스스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주차헬퍼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불법 주·정차의 감소와 공영주차장의 이용이 활성화되어 도로 소통이 원활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 구도심

‘도란도란 테마거리’ 조성

곤충·꽃 조형물과 사신도 벽화 등 에코디자인 접목

공주시가 침체 일로에 있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에코 디자인을 접목, 품격 높은 가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주시는 이러한 친환경 디자인과 제민천을 연결하는 녹색거리, 이야기 거리가 넘치는 역사문화거리 등의 순환루트를 만들어 관광코스화 한다는 계획이다.

시 구상안에 따르면 역사적 배경을 살린 벽화와 곤충 및 꽃을 주제로 친환경 자연테마 거리를 조성, 걷고 싶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무령왕릉-공산성-국고개-제민천-산성재래시장-황새바위-무령왕릉으로의 자연스런 이동을 유도, 재래시장 및 구도심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박물관사거리~공산성 구간을 올해 1차 시범거리로 지정 다양한 곤충 조형물을 도로변을 따라 상가 건물 및 가로등에 부착한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향후 1구간인 금강교에서 공주고까지를 ‘곤충의 거리’로, 2구간인 공주대교에서 시청별관까지를 ‘꽃의 거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3구간인 공주시청에서 비둘기아파트까지 제민천을 따라 자전거도로 및 인도 조성, 창포·부들·유채 등 꽃 식재, 사신도행렬 및 백제역사 등을 건물 및 석축에 그려 넣은 ‘동화(벽화)의 거리’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시민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5월쯤 1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주민공감대를 형성한 뒤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이르면 9월쯤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공주전통문화교육원 제3기 한문 강좌 수료



공주시 상왕동 용문서원 곁에 건립된 공주전통문화교육원(원장 : 백원철 공주대 한문교육과 교수)에서는 2009. 1. 8 ~ 2. 7 까지 한달 간에 걸쳐 「맹자」 과목을 강의하였다. 여러 대학에서 지원한 30여명의 학생은 숙식비만 부담하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매년 방학기간에 1개월씩 숙식하며 국학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강좌를 갖는 동 교육원은 이번 여름에는 대학과 중용 및 통감을 강의할 예정이다. (자세한 것은 다음카페 「공주전통문화교육원」을 참고하면 된다.)

내고장소식

공주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12대 전달



공주시의 야간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순찰차량 12대가 전달됐다.

공주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전달식 및 안전운행 기원제가 이준원 공주시장을 비롯한 각계 기관장과 자율방범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오후 5시 신관동 금강둔치공원에서 열렸다.



이준원 공주시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들이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차량 키를 전달하고 있다.



김이중 공주시 자율방범연합대장이 안전운행을 기원하고 있다.

공주시 시립도서관 1일 도서관 현장체험 운영 매주 목요일 유아 및 초·중고 단체 대상



공주시 시립도서관 강북관은 연중으로 매주 목요일 유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1일 도서관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의 예절교육, 이용자 교육, 동화구연, 교육 영상물, 영화상영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도서관의 역할 등에 대해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접수는 단체 견학의 경우 희망일 2주 전까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gongjulib.go.kr)에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강북관(☎041-840-36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달곤 장관, 우성농공단지 방문

진입도로 확포장 재정지원 검토 약속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이 2월 28일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에 위치한 친환경 특화 우성농공단지를 방문,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오후 3시 우성농공단지를 방문한李 장관은 기업현장을 둘러본 뒤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업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입주업체들의 숙원인 진입도로 확포장 문제와 관련 “개별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하지만, 실무자들에게 틀림없이 챙기도록 하겠다”며 우회적으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李 장관의 기업현장 방문에는 이준원 공주시장을 비롯해 김태룡 공주시의회 의장, 조원구 공주경찰서장, 이흥복 공주시경제인협회장과 김인회(주)자연과 환경 대표 등 입주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된 약 1km의 우성농공단지 진입도로는 도로 폭이 4~5m로 좁고 굴곡이 심해 제품 및 원자재 수송용 화물차량이나 대형트레일러 등의 교차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으로 사랑 전하는 건강전도사

공주 손사랑봉사단 수료식 및 발대식



손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할 ‘공주시 손사랑봉사단’이 공식 발대했다.

2월 27일 오후 4시 공주시 웅진동 주민센터에서는 3주간의 마사지 전문 교육을 마친 31명의 수료자들이 발대식을 갖고 그간 배운 실력을 이웃들을 위해 쓰기로 다짐했다.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총 5회에 걸친 손, 팔, 다리의 경혈점과 반사구점 마사지 교육을 모두 마치고 새로운 봉사단을 결성했다.

이날 가진 ‘손사랑 봉사단’ 수료식 및 발대식에서 공주시 윤석형 시민국장은 “다양한 복지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봉사단까지 결성해 너무나 뜻 깊다”며 수료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국장은 이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찾아가는 주민센터에 투입될 예정인 만큼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랑의 전도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미담

공주중, 전교직원
‘릴레이 제자 사랑’ 펼쳐

2004년 시작 현재까지,
성금 3500여만원 기탁

공주중학교(교장 윤용석)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전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릴레이 제자 사랑’을 이어오고 있어, 교직원들의 남다른 따뜻한 제자 사랑이 주위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전 교직원의 참여로 2004학년도에 628만원을 시작으로 2005학년도에 674만원, 2006학년도에 766만 5천원, 2007학년도에 624만원, 2008학년도에 833만원을 모금하여 현재까지 총 3525만 5천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 기탁금으로 5년 동안 저소득층 자녀 47명의 급식비 1638만 5천원, 야구부 후원금 1887만원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계속될 공주중학교 교직원의 ‘릴레이 제자 사랑’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추운 날씨에도 땀 흘려 훈련하는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참의미의 행복 교육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청사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BS 공주시회 희망의 쌀
전달 독거노인, 기초수급생활자, 결
손가정 자녀 등에

BBS 공주시회(공주시청소년센터, 회장 최병권)는 설날을 맞아 백미 690kg(10kg 10포대)과 떡국떡을 공주시 관내 독거노인을 비롯한 기초수급생활자와 결손가정 자녀들에게 전달했다.

“신관동 어르신 밤 드시고 건강하세요”
계룡산알밤 이상수 씨
알밤 500여kg 신관동에 기증

공주시 신관동 주민자치위원인 이상수(43) 계룡산알밤 대표가 본인이 직접 수확한 부럼용 알밤을 관내 노인들에게 전달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26일 오후 공주시 신관동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의 간식용 먹을거리로 써달라며 알밤 500여kg, 220만원 상당을 신관동 주민센터에 기증했다.

이날 전달된 알밤은 이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사곡면 해월리 성우농장에서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정성이 깃든 밤이다.

이날 전달식에 참여한 김정규 주민자치위원(전 공주시 역도연맹 회장)은 “작년에도 700kg이상을 기증했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부럼용 밤을 기증해 지역 어르신들이 무척 좋아하게 생겼다”며 반색을 표했다.

한편, 윤 동장은 “이 대표가 기증된 밤을 요긴하게 쓰겠다”며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신관동 관내 30곳의 경로당(노인회관)과 2곳의 게이트볼장, 복지관 등 35곳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공주대, 수학교육과 교수들의 제자사랑

수학교육과 신입생 전원에게 책 선물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수(이덕호, 노영순, 박달원, 김응환, 전대열, 안재만)들은 신입생들이 입학하기도 전인 2009년 2월 11일 금년도 수학교육과에 합격한 신입생 전원에게 수학교육과의 역정사업인 수학교육과 권장필독도서 50권중 제 1권인 히로나카의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한권씩 선물로 발송했다.

교수들이 제자들의 입학을 축하 환영하며 큰 인재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희망과 신입생들이 앞으로 대학 4학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학문관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려는 제자사랑의 마음의 표시이다.

한편 공주대 수학교육과는 매년 20명 이상이 교원임용고시에 합격하고, 2009년 공사립 26명이 취업하는 등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공주시한마음 장학회에 장학금 320만원 기탁돼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로 활동하는 정순곤 씨가 지난 2월 4일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전달해 달라며 장학금 320만원을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에 기탁했다.

탄천면 안영1리 청년회, 50만원 장학금 전달

탄천면 안영1리 청년회(회장 김수태)에서는 지난 2월 13일 장학회를 결성하여 탄천초·중학교 학생 5명을 선발하고 1인당 10만원씩 총 50만원의 장학금 지급.

공주중앙로타리클럽, 쌀 40포대 기탁

공주중앙로타리클럽(회장 이동규)은 지난 2월 19일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고 쌀 40포대(10kg)를 장기면사무소에 기탁.

무릉동 박제근씨 쌀 9포대 기탁

무릉동에 거주하는 박제근(박찬호 선수 부친)님은 지난 2월 19일 며느리 출판기념회에서 기증받은 쌀 9포대(20kg)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고 신관동 주민 센터에 기탁했다.



계룡산 갑사 '과목대신제' 열려

소지 올리며 건강과 행운을 빌어



올해도 어김없이 국립공원 계룡산 입구에서 '갑사 과목대신제'가 열려 국태민안(國泰民安)과 국운번창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관광객과 시민들 또한 손에 소지(燒紙)를 태워 하늘로 띄워 올리며 올 한해의 건강과 행운을 빌었다. '갑사 과목대신제'는 매년 정월 초사를 마을 수호신인 1600년 이상 된 느티나무(과목)에 제를 올리는 행사로, 이날 행사에서도 과목대신제와 노신제, 장승제 등이 차례로 올려졌다. 이어 갑사 식당가에 세워진 과목제단에서는 중장리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나라의 번영과 마을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굿을 지낸 뒤 풍물공연과 노래자랑, 민속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져 흥을 돋우었다.





임립미술관, 봄맞이 특별기획전 마련

3월 4일 장수경의 '조각천으로 그린 꽃마당'展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에 위치한 임립미술관(관장 임립)이 봄맞이 특별기획전을 마련한다. 임립미술관에서는 지난 3월 4일 장수경의 '조각 천으로 그린 꽃 마당'展을 열었으며, 이번 전시회는 4월 3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또한 전시작품과 관련하여 미술체험도 진행된다.

장수경 교수는 “시골집 마당에 피고 지는 꽃을 모티프로 하여 물감대신 각양각색의 조각 천을 겹겹이 누비고 이어 붙여 그렸고, 한국여인들이 가정에서 즐겼던 바느질이라는 과정을 작품에 도입했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 시절 밤을 새며 한복을 꿰매시던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 하얀 창호지문을 여름 내 모아 말려둔 꽃잎으로 수놓아 주시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 이러한 아름다운 기억들을 한 땀 한 땀 바느질 속에 그대로 담아내어 흔적으로 남기고 싶었다”고 밝혔다. 미술체험은 한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장수경교수의 전통적인 바느질 기법을 사용하여 조각보 자기, 어린이용 보조가방, 명함지갑을 제작하게 된다. 미술관 관계자는 “장수경교수의 작품전시와 미술체험은 현대미술의 물신주의의 지배적 구조 속에서 우리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미학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웃음과 눈물이 공존하는 공연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으로 열린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가 지난 2월 21일 오후 7시, 22일 오후 3시 더욱 풍성한 무대와,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으로 시민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뮤지컬로서는 흔치않은 종갓집배경.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선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감동적이었으며 특별한 공연이었다. 박정환, 정동현, 이주원, 추정화, 안세호, 박훈, 이형석등의 출연으로 누구 한 명 빠지지 않는 실력과 호흡이 돋보여 더욱더 즐겁고 훈훈한 공연이 되었다.



공주마마밴드, 제1회 정기공연 성황리에 마쳐

환희, 밤이면 밤마다, 빙글빙글, 첫차 등 열창



공주최초 여성 주부 그룹사운드인 ‘공주마마밴드(회장 정경자)’가 지난 2월 28일 공주문예회관에 첫 번째 정기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오후 7시 한반도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연은 그동안 마마밴드의 활동을 담은 동영상 상영에서 출발, 1시간 40분 동안 열정의 무대를 선보였다. 정경자 공주마마밴드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08년 2월 1일 결성된 마마밴드를 이끈 것은 ‘음악을 향한 가슴 벅찬 열정이었다’며 성원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공주마마밴드는 이 공연에서 운명, 환희, 바다에 누워, 밤이면 밤마다, 빙글빙글, 영원한 친구, Let it be, 첫차, 아름다운 강산 등의 귀에 익은 노래를 열창해 관객들로부터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또한 공주시 직장인 밴드인 ‘둥그라미’가 우정 출연해 님과 함께, 흐린 기억속의 그대, 슬픈 영혼의 아리아를 선보였으며, 이날 사회를 맡은 한반도씨도 ‘님의 향기’를 열창해 무대를 빛냈다.





문화원소식

2009년 공주문화원 정기총회 개최

- 2월 26일, 문화원 대강당서



공주문화원은 2009년 2월 26일 오후 6시 30분에 공주문화원 대강당에서 공주문화원 임원 및 운영위원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공주문화원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번 정기총회는 2008년 문화원 사업 영상물을 시청으로 2008년도 결산 및 사업실적보고를 하였으며, 2009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안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의안 심의에 앞서 2008년도 공주문화원 발전 유공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신 구중회(공주대학교 국어과 교수), 나태주(충남 시인협회 회장), 백원철(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이해준(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공주문화원 주최, “예인촌” 마흔여덟 번째 정기공연 〈별의 별〉의 연극 “마술가게”



공주문화원(원장 정재욱)이 주최하고 예술 하는 공주사람들 “예인촌(회장 최선)과 연극동호회〈별의 별〉이 공동주관하는 예인촌 마흔 여덟 번째 정기공연이 지난 2월 6일(금) ~ 7일(토) 오후 7시 공주문화원 강당에서「마술가게」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연극동호회〈별의 별〉은 우리지역 출신들로 결성된 단체이며 매년 한편씩 연극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연극을 향한 구성원들의 갈망을 충족시키는 물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연극은 ‘마술가게’란 이름의 최고급 의상실을 배경으로 펼쳐졌으며 두 도둑과 마네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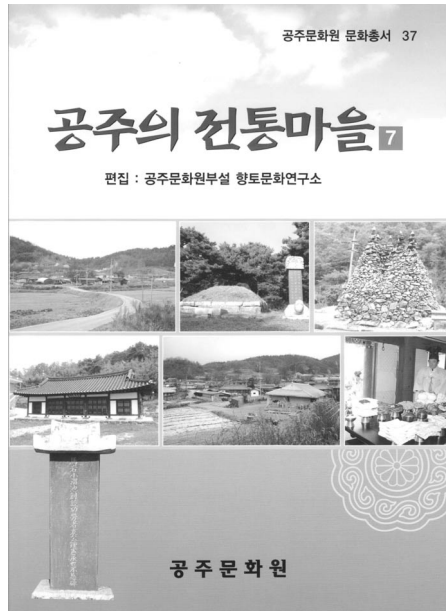
들이 벌이는 다양한 놀이 한마당,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준 배우들의 거침없는 폭소연기로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이번 공연이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민들의 문화욕구충족에 이바지할 수 계기가 되었다.





공주의 전통마을 7집 발간



공주문화원(원장 정재욱)이 공주의 마을 역사를 정리하고 이 시대에 마을 단위의 전통적인 성격을 구분한 내용을 담은 '공주의 전통마을' 제7집을 발간했다. 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공주의 각 읍·면·동 단위 전통 있는 마을을 선정, 마을마다 지니고 있던 전통문화를 되살려 민족의 이념과 맥을 이어 나가고자 잘된 것은 취하고 잘못된 것은 버려 옛것을 소중히 하자는 취지로 '공주의 전통마을'을 연중 계속 사업으로 발간해오고 있다.

제7집에 소개된 마을은 ▶공주시 월송동▶공주시 주미동▶공주시 태봉동▶유구읍 입석리▶유구읍 탑곡리▶이인면 만수리▶탄천면 견동리▶계룡면 향지리▶반포면 마암리▶장기면 대교리▶의당면

태산리▶정안면 어물리▶우성면 동대리▶우성면 죽당리▶사곡면 계실리▶신풍면 봉갑리▶신풍면 쌍대리 17개 마을 이다.

정재욱 문화원장은 발간사에 "1997년 국제 금융 이후 최악이라는 경제상황에서 우리는 이 작은 책자에 담긴 정신을 되짚어 오늘을 사는 우리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 편집 : 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발간 : 공주문화원

— 전화 : 041-852-9005

— E-mail : 8529005@hanmail.net

공주문화원 전통마을 7집은 공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닥종이 인형

김 승 임

노란 피복선
얼굴. 팔. 다리. 몸통을 엮어
닥종이와 밀가루풀이
인형을 만들어 낸다.

작은 실눈에
코도 작은 들창코,
작은 입술, 상고머리
단발머리의 검은 통치마,
감정 고무신

코찔찔이 인수와
오줌싸개 영호
바둑이와 같이
달려가는 지난 세월의
나의 자화상 같은
닥종이 인형



|약력|

-59년 인천 출생
-2001~2005 닥종이 인형 이수
-2008년 3월 KBS 따따부따 방송출연
-2008년 10월 TJB 길을 따라서 방송출연
-2008년 12월 KBS 5.40 스튜디오 출연
-현)2006년부터 공주문화원 닥종이 인형강사



2009

2009년도

사업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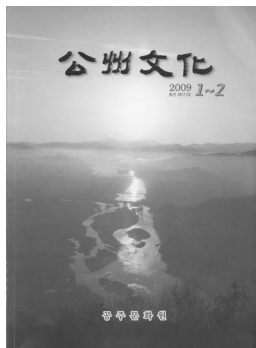
향토문화연구사업



□ 사업명 : 『공주문화』 소식지 발간사업

고향을 떠나 있는 전국의 출향인사 및 문화가족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식지를 발간하여 무료로 배포 출향인사에게는 고향간의 가교역할을, 문화가족 및 시민들에게는 애향정신을 갖게 함.

- 추진시기 : 2009년 1월~12월
- 발간규격 : 4×6배판 68쪽
(1, 3, 5, 7, 9, 11월 격월 6회 발간)
- 수량 : 격월간, 2,500부
- 편집내용 : 용진칼럼, 특별기고, 공주의 봉사단체소개, 향토사료, 설화, 특집, 공주의 인물, 우리고장의 옛 자취를 찾아서, 미담, 전통문화시리즈, 공주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출향인사 동정, 내고장소식, 문화원 소식, 문화가산책 등
- 편집위원 : 이극래, 구중회, 나태주, 신용희, 김춘원





□ 사업명 : 향토 민속 발굴 선양 사업

『공주의 전통마을』 제8집 발간 사업

공주관내 각 읍·면·동에서 공주의 토속적인 풍경이 살아있는 전통마을을 1~2개씩 12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리, 인문, 환경, 성씨, 인물, 유적, 민속, 구전, 생활사 등을 발굴 조사하여 발간함.

- 추진시기 : 2009년 3월~12월
- 규격 및 수량 : 4×6배판 약350~400쪽 700권
- 사업주체 : 본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사업명 : 우리 조상 알기 사업(뿌리 찾기 사업)

- 서구화·핵가족화로 잊혀져가는 조상의 뿌리를 찾고 후손에게 혈연의 중요성 인식고취 및 경로효친사상 함양
- 우리지역에서 배출한 주요인물을 발굴하여 내 고향 찾기 사업 추진 →5도2촌과 사업과 연계하여 출향 인사 방문유도
- 성씨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연차적 사업추진→연간 4대 성씨
- 조상과 관계된 주요 문화유적 탐방 추진으로 관광 상품화

- 추진시기 : 2009년 3월~12월
- 사업내용 : 시민 누구나 조상의 뿌리를 알게 하여 경로효친사상 함양은 물론 내 고향 찾기 사업 추진으로 5도2촌 사업과 연계하여 애향심 제고, 기획성씨 2개, 지원성씨 2개성씨 선정으로 책자발간, 학술세미나, 유적답사 실시





향토문화교육사업



□ 사업명 : 지역문화학교 운영사업

공주문화원이 지난 93년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역문화학교로 지정받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문화심성 계발과 정서함양 및 문화예술 감성훈련을 통하여 계층간 문화수준의 격차 해소와 함께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함.

- 추진시기 : 2009년 1월~11월
- 대 상 : 공주관내 시민 및 주부
- 사업내용 : 국선도(단전호흡), 가곡, 풍물(초급·중급), 댄스스포츠(초급·중급), 가야금, 닥종이·한지공예, 건강요가, 서예, 민요, 사진, 생활일본어, 퀼트, 오카리나, 중국어, 다도, 한국무용 등.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
- 장 소 : 공주문화원

□ 사업명 :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문화유적 순례 답사

청소년들에게 우리조상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백제 문화유적을 순례 답사함으로써 향토문화에 대한 지식함양과 실제적인 소양을 배양함.

- 추진시기 : 2009년 6월
- 대 상 : 공주관내 초·중·고 학생 및 공주시민, 문화가족
- 장 소 : 청소년, 일반시민 - 장소 미정





향토문화행사사업



□ 사업명 : 문화예술인 정기공연 사업(예인촌)

관내 예술인들의 모임인 예술하는 공주사람들 “예인촌” 회원들이 년4~5회 정기공연을 개최하여 예술인들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추진시기 : 2009년 2월~12월
- 장 소 : 문화원 강당 및 공주시 일원
- 사업주체 : 예인촌(예술하는 공주사람들)
- 사업내용 : 우리소리, 한국무용, 연극, 풍물, 민요, 생활무용, 판소리 등

□ 사업명 : 찾아가는 우리문화 순회공연 사업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전통문화의 체험을 통해 창의력 계발과 우리문화의 가치를 이해시키고 뿌리 깊은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전승보급하고자 함.

- 추진시기 : 2009년 9월~10월
- 장 소 : 관내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5~7 개교 및 시설방문





문화원소식



□ 제14회 효사상 선양 공주시 초·중·고 학생 글짓기 백일장

우리생활의 최고덕목인 효사상 및 공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 고취시키는 한편 문학의 저변확대에 있음.

- 추진시기 : 2009년 6월
- 장 소 : 공주 공산성 쌍수정 광장
- 대 상 : 관내 초·중·고 학생
- 사업내용 : 효와 공주사랑을 주제로 한 산문과 운문 글짓기

□ 사업명 : 향토작가 초대전

- 공주출신 향토작가를 초대하여 그들에게 활발한 작품 활동의 폭을 넓혀주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작품을 전시해 감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추진시기 : 연중 2회(6월, 10월 실시 예정)
- 장 소 : 문화원 전시실

□ 사업명 : 실버문화학교 운영사업

공주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불우계층 등 신체적, 경제적사유로 문화현장에서 배제된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지방문화원 역할 제고

- 대 상 : 문화향수에 소외된 지역주민 및 청소년,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아동, 장애인 등
- 추진시기 : 2009년 1월~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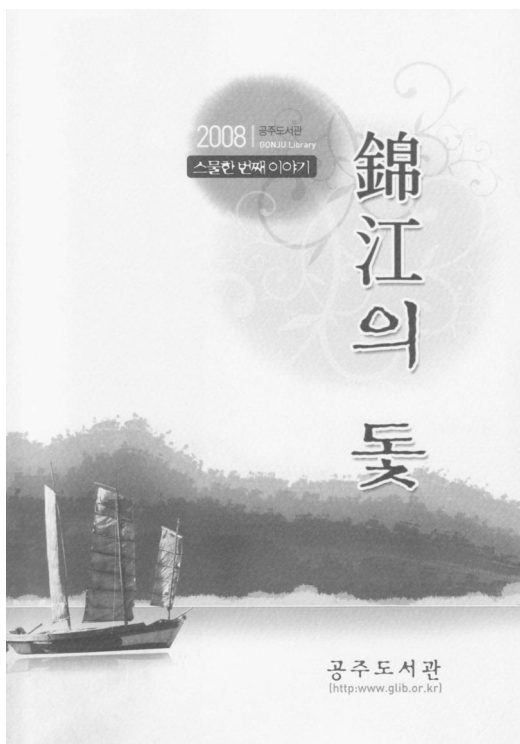




錦江의 돛

공주도서관

2008년 스물한 번째 이야기



앞산 가는 길

맹 정 하

오늘도 어제처럼
나지막한 앞산 가을 길을 걷는다.
꽃들은 지고
새들의 지저귐 소리 가끔씩 들리는
한적한 등산로

돌아보면 그 무엇인가 떠밀리듯 공연히 서두르며
앞만 보고 가던 길
살갗에 닿는
한결 가슬가슬한 바람결에
점점 녹색물이 빠져나가는 나뭇잎들을
담담히 바라보며

-본문 중에서

공주 도서관(관장 양인석)의 주부독서동아리인 '금강주부독서회'는 1987년 48명의 회원으로 척박했던 당시의 독서문화 환경 속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학특강, 독서문집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번에 발간된 '금강의 돛 21집'에는 주부독서회 회원들의 정성어린 시, 수필과 금강어린이독서회 및 금강 청소년독서회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중등부 산문 장원]

컴퓨터

컴퓨터

공주여자중학교 2학년 정 소 라

컴퓨터가 생긴 3학년 때부터 컴퓨터는 우리집의 대화단절기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그리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가 우리집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 동안은 괜찮았다. 엄마와 아빠는 컴퓨터에 능숙하지도 않으셨고 컴퓨터를 처음 만져본 10살 여자아이와 8살 남자아이인 남동생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컴퓨터는 우리집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었다. 컴맹이라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던 엄마도 4년이 지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인터넷 쇼핑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아빠도 컴퓨터를 많이 접하게 되고 스포츠뉴스를 보러 컴퓨터 전원을 누르는 횟수가 늘어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컴퓨터의 유혹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아빠는 스포츠뉴스를 보느라, 엄마는 인터넷쇼핑을 하느라, 나는 나대로 음악 감상하고 서핑하느라, 동생은 여러 게임을 섭렵하느라 대화의 시간은 줄어만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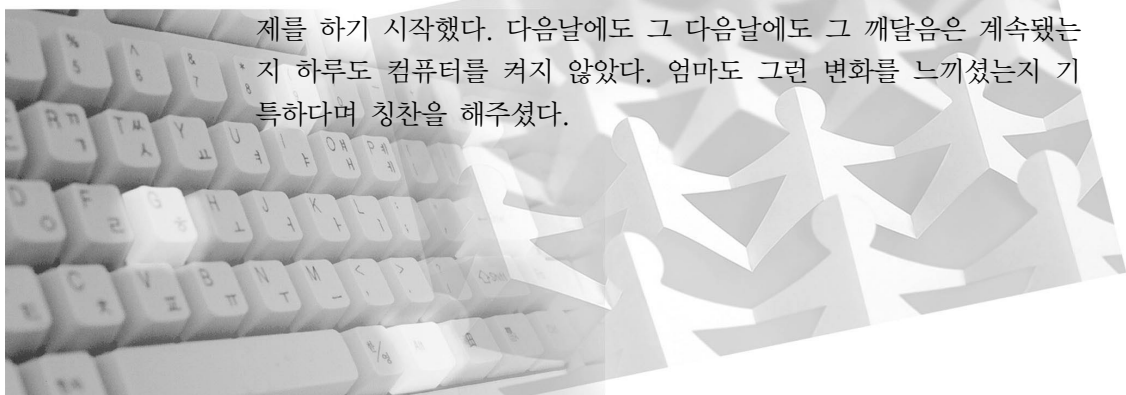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가져온 자가 진단서를 보고서야 우리 가족에게 직면해 있는 컴퓨터중독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동생이 가져온 컴퓨터중독 자가 진단서에는 동생이 심각한 컴퓨터중독자라는 결과가 나와 있었다. 급기야 엄마는 정신과에 데려가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동생이 정신과는 안 간다고 해서 엄마는 동생의 컴퓨터 습관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그 날부터 당장 컴퓨터를 끊으셨다. 그리고 컴퓨터 시간을 정하고 게임은 거의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도 동생이 드디어 엄마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벌이고야 말았으니, 준비물을 산다고 돈을 받아서 PC방에 간 일을 엄마가 알게 된 것

이다. 엄마는 화가 나서서 그날 동생을 처음으로 때렸다. 그리고 동생에게는 컴퓨터 금지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그 엄명이 내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숙제를 한다고 자기 방에 콕 틀어박혀서 나오지를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엄마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가 보니 역시나 숙제는 처음에 퍼 놓은 그 상태고 동생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게임하다 배운 욕설도 문제였으며 게임에서 지면 키보드를 때려 부수려 하는 폭력적인 태도도 문제였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컴퓨터였다.

동생이 하고 있는 게임은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으로 18세 이상만 할 수 있는 게임을 어떻게 할 수 있었나 추궁해보니 의료보험증에 나와 있는 아빠의 주민번호로 가입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엄마는 그 게임을 해보라고 시키고서 어떤 게임인지 파악하고 그 게임을 할 때의 동생의 상태를 살피셨다. 그 게임은 온라인상의 다른 적들을 칼이나 총, 수류탄으로 죽이는 아주 폭력적인 게임이었다. 그리고 그 게임을 할 때 동생은 먼 곳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도 같았고 게임 중 누가 말을 걸면 절대 못 들도록 방음벽이라도 쳐둔 것 같았다. 공부할 때 저런 고도의 집중력을 쏟아 붙는다면 전교 1등은 하고도 남을 것 같았다.

엄마는 힘없이 컴퓨터를 끄라고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안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방에 귀를 대보니 게임이 아이를 망쳐 놓았다며 속상해하는 엄마의 혼잣말이 들려왔다. 옆에서 그 소리를 듣던 동생이 무언의 깨달음이 있었는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숙제를 하기 시작했다.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그 깨달음은 계속됐는지 하루도 컴퓨터를 켜지 않았다. 엄마도 그런 변화를 느끼셨는지 기특하다며 칭찬을 해주셨다.



그 때 처음으로 컴퓨터가 사람을 얼마나 나쁜 길로 물들게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물건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엄마의 사랑도 함께 동생이 그런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도 동생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동생의 나쁜 행동을 볼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깨달았다. 지금도 동생은 게임을 아주 안 하진 않지만 하루쯤 안 한다고 해서 불안해하지도, 밤늦게 몰래하지도 않는다. 시간을 정해서 정확히 지킨다. 다시 그때의 동생으로는 영원히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21세기 중심부에 있는 컴퓨터,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물들어선 안 되는, 청소년기에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들도 많다. 그런 것들로부터는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동생의 경우는 부족한 판단력을 엄마의 사랑으로 채워졌지만 말이다.



[초등부 운문 장원]

부모님의 생신날

봉황초등학교 5학년 김 혜 진

생신! 생신!
고민스러운 부모님의 생신날!

휴……
부모님의 생신이 다가오면
한숨부터 나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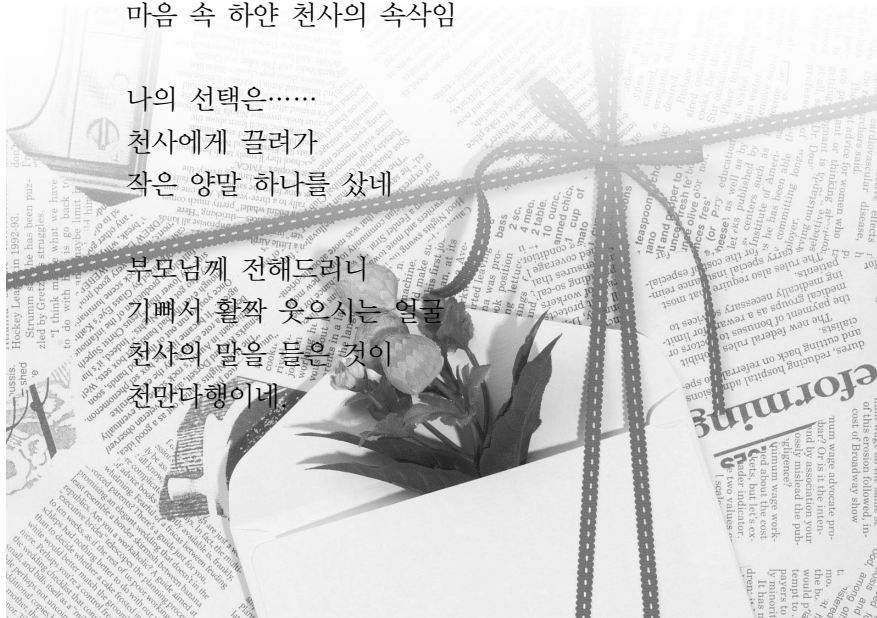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비싸고 화려한 선물장만
하지만 얼마 되지 않은 용돈

‘돈 아까워’
마음 속 검은 악마의 속삭임
‘그래도 사랑하는 부모님 생신날이야!’
마음 속 하얀 천사의 속삭임

나의 선택은……
천사에게 끌려가
작은 양말 하나를 샀네

부모님께 전해드리니
기뻐서 활짝 웃으시는 얼굴
천사의 말을 들은 것이
천만다행이네

부모님의
생신날





알 램

「공주문화」지는 격월간으로 2,500부 발간하여 국내경향각지에 사시는 우리공주출신인사 여러분들과 각급기관 사회단체 및 공주시민들께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를 받아보고 계시는 분이 주소가 변경될 시 변경된 주소를 본 문화원으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변경으로 반송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로 인하여 주소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 양식에 의거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변에 고향이 공주이거나 연고가 있으신 분도 계시면 함께 알려주시면 그분께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화지는 공주가 고향이신 출향인사나 또는 공주와 인연이 있으신 분에게 무료로 배부해 드리고 있어오니 주소변경이나 이웃에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음

성명	연령	자택주소	직장 및 직위	전화번호	우편번호	출신지역
----	----	------	---------	------	------	------

- 보낼곳 - 314-100 충남 공주시 반죽동 184-2

공 주 문 화 원

전화 041)852-9005, 852-7600

E-mail:8529005@hanmail.net | 홈페이지:www.culturegj.or.kr | 네이버검색:공주문화원